

막차수학

영상 시청자 무료 샘플

상명대 인문 파이널 하루 체험판

이 샘플에 들어 있는 것

1. 10일차 ① 올해 EBS 연습 1회 — 문제 · 빠른 정답 · 해설
2. 10일차 ② 기출 — 문제 · 빠른 정답 · 해설
3. 상명대 인문 오프라인 실전 모의고사 — 문제지 · 해설

이렇게 쓰세요

실제 시험처럼 60분을 재고 풀어 본 뒤, 빠른 정답으로 채점하고 해설을 읽으세요. 문항 코드로 해설 강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됩니다.

출제 · 해설: 막차수학 원장 현정호 · 무단 배포 금지

상명대 인문 파이널 10일차

하루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합니다. 한 가지를 끝내면 바로 그 해설로 채점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①	올해 EBS 연습 1회	2
	제1부 (10문항) · 문제 · 해설 · 60분	
	문제	3
	해설	19

①	올해 EBS 연습 2회	30
	제2부 (10문항) · 문제 · 해설 · 60분	
	문제	31
	해설	50

②	가천대·상명대 자연 계열 기출	61
	제3부 (10문항) · 문제 · 해설 · 60분	
	문제	62
	해설	72

③	실전 모의고사 10회	83
	제4부 (10문항) · 문제 · 답안지 · 해설 · 60분	
	문제	84
	답안지	95
	해설	100

모든 문항에 문항 코드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는 문항은 코드로 강의를 찾아볼 수 있고, 막히는 문항은 코드를 선생님께 보내 질문하세요.

1

올해 EBS 연습 1회

올해(2027학년도) EBS 수능특강·수능완성 문항을 상명대 논술고사 형식(국어 8 · 수학 2, 각 10점)으로 모았습니다.

문항	국어 8 · 수학 2 (각 10점)
시간	60분
문제	3쪽부터
해설	19쪽부터

푸는 순서

- 1. 시간을 재고 60분 안에 풀니다.
- 2. 답은 문항 아래 칸에 씁니다. 수학은 풀이를 여백에 쓰고 마지막 값을 답 칸에 씁니다.
- 3. 다 풀면 해설로 채점하고, 틀린 문항은 문항 코드로 강의를 찾아 봅니다.

시작 시각 ____ : ____ 종료 시각 ____ : ____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1227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분 체계인 ‘스코프(Scope)’가 활용된다. ‘스코프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설비 가동을 위한 화석 연료의 연소나 해당 기업이 소유한 차량 운행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이 배출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업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도 있다. ‘스코프 2’는 기업이 외부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즉 간접 배출 중 기업의 에너지 구매 활동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스코프 3’은 ‘스코프 1’과 ‘스코프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간접 배출량을 포괄한다. 임직원의 출장이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처럼 기업의 통제 범위 밖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며, 측정과 관리가 가장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기업 활동의 부정적 측면, 즉 배출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이 혁신 기술로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한 ‘회피된 배출’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제품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저감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내연 자동차 대신 전기차를 타면서 줄어든 탄소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의 스코프들은 환경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의미인 ‘탄소 발자국’으로 비유되어 왔지만, 일부에서 ‘스코프 4’라고도 불리는 회피된 배출은 기업이 환경을 돕는다는 의미로 ‘탄소 손자국’에 비유된다.

회피된 배출량은 ‘기준선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량’을 뺀 값이다. 기준선 배출량이란, 공급된 친환경 제품의 수량만큼 기존의 일반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설정했던 가정을 ‘기준선 시나리오’라고 한다. 또한 실제 배출량은, 기준선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수량만큼의 친환경 제품에서 실제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이다.

기업들은 자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피된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공시의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피된 배출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서 높은 타당성을 인정받기에는, 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과대 계산’의 위험이다. 이는 기준선 시나리오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때 발생한다. 예컨대 신형 냉장고에 의한 탄소 배출의 감축 성과를 홍보하려는 기업이, 비교 대상을 현재 판매되는 ‘시장 평균 제품’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낮은 10년 전의 ‘구형 모델’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위해 타당성이 낮은 기준선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이다.

둘째는 이중 계산의 문제이다. 이는 하나의 감축 성과를 여러 주체가 각자의 것으로 중복 산정하는 상황이다. 가령 고효율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와, 그 부품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완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각각 감축량 전부를 자신의 회피된 배출량으로 계상하면, 동일한 감축 성과가 여러 단계에서 중복 합산됨으로써 전체 감축 실적의 객관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참여자들이 배출 감축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분해야 한다.

1. <보기>는 제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①~⑤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②와 ⑤는 제시문에 제시된 차례 그대로 쓸 것.)

<보기>	
항목	정리
간접 배출량 가운데, 기업이 외부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그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몫	(①)
배출만을 재는 기존의 스코프들에 붙는 비유와, 기업의 감축 기여를 재는 회피된 배출에 붙는 비유	(②)
회피된 배출량을 구할 때 기준선 배출량에서 빼는 값	(③)
공급된 친환경 제품의 수량만큼 기존의 일반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가정	(④)
회피된 배출이 감축 성과로서 높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두 과제	(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SMK-M-0271

(가)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머얼리서 바라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 오세영, 「원시」

(나)

차심이라는 말 있지
찾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찾잔을 길들이는 거라 했지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룰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뜨거운 찻물이 금 속을 파고들어 가
그릇 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고……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 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빗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찻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 손택수, 「차심」

2. <보기 1>을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보기 2>의 ㄱ~ㅁ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개를 찾아 그 기호를 ㄱ~ㅁ의 차례에 따라 ①과 ③에 쓰고, 각 진술의 밑줄 친 부분을 밑글에서 찾은 말로 바르게 고쳐 ②와 ④에 쓰시오. (단, ②와 ④는 각각 한 어절로 쓸 것.)

<보기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다른 대상과 물리적 또는 심리적 거리가 생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은 흔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두 화자는 그 상황에 담긴 긍정적인 이면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화자는 삶을 성찰하며 내적으로 성숙해 간다.

<보기2>

- ㄱ. (가)에서 화자가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나이 들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ㄴ. (가)에서 화자가 자기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사라지는 일일 뿐이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상황의 긍정적인 이면을 발견한 것이군.
- ㄷ. (나)에서 화자가 찻잔에 물이끼가 끼었나 했다는 것은, 차심에 대한 화자의 처음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ㄹ. (나)에서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이 병균도 막아 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는 것은,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흠에서 긍정적인 이면을 발견하는 인식과 관련되는군.
- ㅁ. (나)에서 화자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서는 차잎만 우려도 차 맛이 난다는 말을 떠올리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상처를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 관계가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군.

①	기호:
②	고친 말:
③	기호:
④	고친 말:

「3」 (가)는 교내 도서관 행사의 안내문이고, (나)는 행사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SMKM-0272

(가) 「인류세의 미래」 제작자들과의 이야기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인류세. 그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이 책은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인 인류세에 남긴 흔적에 따라 지구의 앞날이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번 도서관 행사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인류세의 흔적을 직접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작자 두 분을 모시고, 환경 문제와 우리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큐멘터리는 같은 제목의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 일시·장소: 202×년 9월 2×일 오후 4시 30분, 본교 시청각실 ○ 참가 신청: 선착순 80명(QR 코드로 신청)

○ 진행 순서: 1. 초대 손님과 참가자 소개 2. 주요 용어에 관한 대화 3. 다큐멘터리 제작 뒷이야기 4. 질의응답과 특별 퀴즈(상품 증정)

(나)

사회자: 오늘 사회를 맡은 도서부장 □□□입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인류세의 미래」를 만들고 같은 내용의 책을 쓰신 ○○○ 피디님과 △△△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심이 워낙 높아 희망자 가운데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정했는데, 신청이 끝난 뒤에도 생물학과 지질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피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의 열기 덕분에 지구가 앓는 병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네요.

사회자: 첫 질문입니다. ‘인류세’라는 말이 낯선데, 이 말을 제목으로 삼으신 까닭이 궁금합니다.

작가: 인류세는 지질학적 개념과 관련된 말로, 네덜란드의 대기 과학자 파울 크뤼천이 만들었습니다. 홍적세와 홀로세 다음의 지금 시대를 일컫는데,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을 좌우할 만큼 커졌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인류가 자연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으니, 지구를 쓰는 인류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후손의 삶이 달라진다는 문제의식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사회자: ㉡그러니까 지구를 빌려 쓰는 우리가 뒷정리를 잘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말이라는 뜻이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작하면서 가장 경각심이 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피디: 남극의 눈 속에서까지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가장 멀어서 깨끗하리라 여긴 곳에도 인간의 흔적이 닿아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습시다.

사회자: ㉢이제부터는 방청객 즉석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학생은 손을 들어 주시고, 방송반 친구는 제가 가리키는 학생에게 마이크를 전해 주세요. 네, 저기 두 번째 줄 학생.

학생 1: 다큐멘터리 다음에 계획하신 작업이 있으신가요?

피디: ㉣지금은 ‘기후 불평등’을 주제로 후속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도 얽혀 있어서, 더 많은 분이 그 관련성을 알아 주셨으면 해요.

학생 2: ㉤다큐멘터리와 책을 보고 환경 쪽으로 진로를 정하겠다는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저처럼 환경 관련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작가: 환경 관련 진로가 꼭 과학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문학, 예술, 교육, 미디어 등 모든 분야와 이어져 있어요. 문제의식과 공감 능력,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3. [3-1] <보기 1>은 (가)의 진행 순서 가운데 일부가 (나)에서 구현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 1>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단, ①은 2어절로, ②는 1어절로 쓸 것.)

<보기1>	
(가)의 진행 순서	(나)에서 구현된 내용
주요 용어에 관한 대화	‘인류세’는 네덜란드의 대기 과학자 (①)이/가 만든 말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을 좌우할 만큼 커졌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다큐멘터리 제작 뒷이야기	(②)의 눈 속에서까지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경각심이 들었다고 밝힘.

①	
②	

[3-2] <보기 2>의 ③, ④에 해당하는 발화를 ㉠~㉤에서 찾아 각각 기호를 쓰시오. (단, ③, ④는 서로 다른 기호로 쓸 것.)

<보기2>	
③	앞으로의 계획을 오늘 대화의 주제와 관련지어 밝히고 있는 발화
④	상대의 답변에 담긴 내용을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질문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발화

③	
④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1112

증강 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에 가상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부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증강 현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로 이분화되어 각각 현실과 가상으로 대응되었던 세계의 이미지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결합하여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경험하는 사용자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가상의 물체와 상호 작용하여 확장된 공감각적 몰입과 실재감을 느낄 수 있다. 시야를 차단하는 헤드셋 및 가상 환경을 조종할 수 있는 특수 장갑 등을 착용하고 현실 세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몰입형 가상 환경과 달리, 증강 현실은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가상 환경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환경을 조정하는 비몰입형 가상 환경을 위주로 구현된다.

증강 현실은 여러 측면에서 증강 가상과 혼용되거나 비교된다. 이 둘은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세제인 혼합 현실에 해당된다. 증강 가상은 가상 환경을 중심으로 현실 이미지를 합성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몰입형 가상 환경에 기반하여 구현되므로 증강 현실에 비해 몰입도가 높다. 반면 증강 현실의 중심은 현실의 환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보완하므로 현실과의 정합 여부가 중시된다. 이 경우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 환경에 필요한 가상의 정보를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증강 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이미지 혹은 영상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 혹은 영상을 겹쳐서 현실 환경과 가상 이미지와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는 가상 환경과 합성된 현실 이미지 간의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증강 가상과 대비를 이룬다.

현존감이란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환경을 현실처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미디어와 관련한 최근의 가상 환경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상 환경에 몰입한 상태에서 가상 환경 속에 자신이 실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현존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규정되는데, 개인의 감각을 통해 가상 환경을 현실 공간처럼 느끼는 감각적 현존감, 가상 환경이 사용자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가상 환경을 현실 공간처럼 느끼는 공간적 현존감, 가상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나 캐릭터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현실 공간에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현존감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사회적 현존감은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과의 소통이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유사 사회적 상호 작용, 매개된 사람과 현실 공간 속에서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장소적 실재감,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과 소통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매체 경험에 의해 유발된다.

현존감은 사람이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지하게 되는지를 다루는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현존감의 세 유형은 공간에 대한 인지 요소인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과 연결된다. 감각적 현존감은 인간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체적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간 인지 요소는 체험성이라 할 수 있다. 공간적 현존감은 콘텐츠가 만드는 영역을 통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영역성을 통해 공간을 인지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사회적 소통을 통해 공간에 존재함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존감은 사회성과 연결된다.

4. <보기>는 제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증강 현실은 현실 세계에서 취한 이미지와 가상 세계의 정보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보완하는 기술로 현실과의 (㉠)이/가 중요하다. 증강 현실이 여러 측면에서 증강 가상과 혼용되는 이유는 증강 현실과 증강 가상 모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속체 사이에 존재하는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강 가상은 몰입형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현실 이미지를 합성하여 보여주므로 증강 현실보다 몰입도가 더 높다. 한편 현존감이란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하여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가상 환경 속에 자신이 실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이중 공간적 현존감은 공간 인지 요소 중 (㉢)와/과 관련된다.

㉠	
㉡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SMKM-0273

국어의 형태소 가운데에는 받침 자리에 두 자음이 함께 놓인 겹받침을 지닌 것들이 있다. 이런 형태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연음이 일어나는데, 이때 겹받침의 앞 자음은 그대로 앞 음절의 종성으로 남고 뒤 자음만 다음 음절의 초성 자리로 옮겨 간다. 실제 발화에서는 ‘닭을’을 [다글]처럼 소리 내어 이 연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흔하지만, 이는 표준 발음이라 할 수 없다. 겹받침이 ‘ㅅ’으로 끝나면 연음될 때 그 ‘ㅅ’이 [ㅆ]으로 소리 나는데, ‘값이[갑씨]’가 그 예이다. 한편 겹받침의 끝 자음이 ‘ㅎ’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ㅎ’이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다음 음절의 초성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결국 겹받침의 앞 자음이 그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많아[마: 나]’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는 단어의 끝에 올 때, 자음 앞에 올 때,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 올 때 언제나 자음군 단순화를 겪는다. 다만 두 자음 가운데 어느 쪽이 탈락하는지는 겹받침을 이루는 자음이 무엇인지, 또 그 밖의 여러 변수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기대어, 먼저 한쪽 자음이 늘 일정하게 탈락하는 겹받침부터 보자. 장애음*끼리 모인 ‘ㄲ’, ‘ㄴ’은 언제나 뒤 자음이 떨어져 각각 [ㄱ], [ㄴ]으로 소리 난다. 비음이 들어 있는 ‘ㄴ’, ‘ㄷ’, ‘ㄹ’은 늘 비음이 아닌 쪽이 떨어져, ‘ㄴ’과 ‘ㄷ’은 [ㄴ]으로, ‘ㄹ’은 [ㄹ]으로 소리 난다. 그리고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끼리 모인 ‘ㄷ’, ‘ㄹ’은 늘 뒤 자음이 떨어져 둘 다 [ㄷ]로 소리 난다.

이와 달리 ‘ㄴ’, ‘ㄷ’, ‘ㄹ’은 탈락하는 자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같은 겹받침이라도 단어에 따라, 혹은 지역이나 화자 같은 변수에 따라 떨어지는 자음이 다를 수 있다. ‘ㄴ’과 ‘ㄷ’은 앞 자음 ‘ㄴ’이 떨어지므로, ‘ㄴ’은 [ㄱ]으로 소리 나고 ‘ㄷ’은 남은 ‘ㄷ’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ㄷ]으로 소리 난다. 그런데 용언 어간 끝의 ‘ㄴ’은 ‘ㄱ’ 앞에 놓이면 ‘ㄴ’ 대신 ‘ㄱ’이 떨어져 [ㄱ]로 소리 난다. 이 현상은 용언이 활용할 때뿐 아니라 ‘밟기[발끼]’와 같은 복합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ㄷ’은 원칙상 뒤 자음 ‘ㄷ’이 떨어져 [ㄷ]로 소리 나지만, ‘밟-’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리고 ‘-ㄴ’이 들어간 복합어 가운데 ‘-ㄴ죽하다’, ‘-ㄴ둥글다’ 등에서는 [ㄷ]으로 소리 난다.

* 장애음: 자음 가운데 공기의 흐름이 크게 방해를 받는 부류로, 파열음·마찰음·파찰음이 이에 해당함.

5. [5-1] <보기 1>은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단, 각각 두 어절로 쓸 것.)

<보기1>

-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①)이/가 결합하면, 겹받침의 뒤 자음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간다.
- ‘ㄷ’, ‘ㄹ’은 (②)이/가 같은 자음들로 이루어진 겹받침이어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면 늘 뒤 자음이 탈락하여 [ㄷ]로 발음된다.

①	
②	

[5-2] <보기 2>는 겹받침의 발음을 설명한 것이다. ㉠~㉣ 중 윗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하나 찾아 기호를 쓰고,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고친 말은 자음 하나로 쓸 것.)

<보기2>

- ㉠ ‘뭉’의 ‘ㄱ’은 단어 끝에서 ㄱ 소리가 난다.
- ㉡ ‘짧다’의 ‘ㅍ’은 종성에서 ㄹ 소리가 난다.
- ㉢ ‘밝고’의 ‘ㄹ’은 종성에서 ㄱ 소리가 난다.
- ㉣ ‘밟다’의 ‘ㅍ’은 종성에서 ㅂ 소리가 난다.
- ㉤ ‘웁다’의 ‘ㅍ’은 종성에서 ㅂ 소리가 난다.

③-1	기호:
③-2	고친 말:

[5-3] 윗글의 설명에 따라 ‘닭을’의 표준 발음을 한글로 쓰시오.

④	
---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2155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에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都會)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주(客主)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 형(兄)!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 갑지—부치던 생각이 납니다. 베짚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T)’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룬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찢어버린

때묻은흰나비

봉선화는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 물 —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란계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엮어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째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꾸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중략)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 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벌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깡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입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작야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이 들을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서니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 이상, 「산촌 여정」

*MJB : 커피의 제품명.

*요비링: 초인종의 일본어.

6.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감상문이다. 번호 ①~⑤의 근거가 되는 표현을 조건에 맞게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① ①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5어절) ② ②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3어절) ③ ③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2어절) ④ ④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3어절) ⑤ ⑤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 낱말로 찾아 쓰시오.

<보기>

이 글의 글쓴이는 ㉠에 머물면서도 그곳의 풍경을 ㉡에서 익힌 감각으로 옮겨 적는다. 밤에는 등잔에 올라앉은 베짚이의 울음을 먼저 ①차표를 찍는 소리로 듣고, 이어 ②이발 도구가 내는 소리로 바꾸어 듣는다. 꿈에 나타난 가난한 식구들이 나란히 늘어선 모습은 ③전쟁의 기록 사진에 빗대어진다. 아침이 되면 밤새 켜 둔 등잔이 남긴 흔적을 ④낡은 옷의 작은 부속에 빗대고, 마당을 나는 새빨간 잠자리의 움직임을 ⑤질병을 옮기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SMKM-0274

사회자 : 최근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화 예술 분야에서 AI가 창작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흐나 렘브란트의 화풍을 흉내 내는 AI 미술가, 비틀스풍으로 곡을 쓰는 AI가 등장했고, 한 AI 화가의 작품 29점이 경매에서 모두 9만 7,000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AI가 두각을 보이고 있어, 오늘은 ‘AI도 예술가로 인정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 ‘예술’이라는 말의 ‘예’와 ‘술’에는 본래 과제를 능숙하게 해내는 방도, 곧 ‘기술’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테크네, 아르스, 아트 같은 서양의 말들도 본래 숙련된 솜씨로서의 ‘기술’을 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숙련된 기술을 구사하는 존재로 AI만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어떤 AI는 1,119명의 화가가 그린 작품 8만 1,449점을 학습한 뒤, 기존 작품의 기법이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만들어 냅니다. 게다가 한 논문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사람의 그림과 AI의 그림을 가려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AI 화가 ‘오비어스’의 초상화는 뉴욕 경매에서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숙련도, 독창성, 사람의 작품과 구별되지 않는 작품성을 볼 때 AI도 예술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결국 인간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AI는 창작을 돕는 도구이고, 예술가는 인간 아닐까요?

찬성 1 : 인간 화가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여러 방식으로 보고 익히며 자기 스타일을 만듭니다. AI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 2 : 사람의 그림과 AI의 그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그 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입니까? 실험 참가자의 수나 특성이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찬성 1 : ○○ AI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참가자의 대표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 반대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예술은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려는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가공하여 결과물을 내는 활동이며, 그렇기에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올려 감동을 줍니다. AI가 딥 러닝으로 이제껏 없던 작품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계산과 학습의 산물일 뿐, 미적 가치를 이루려는 주체의 의도가 없으므로 AI를 예술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근법이나 카메라의 발명이 예술에 새 길을 열었듯 과학 기술은 예술의 영역을 넓히거나 바꾸는 역할을 할 뿐, 그 자체가 예술은 아닙니다. AI는 인간의 명령과 학습 체계에 따라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주는 도구입니다. 또 인간의 예술에는 창작자가 겪은 경험과 감정, 사회적 맥락이 담기는데, AI는 경험을 하지도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므로 자기 고유의 힘과 개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독창성·창의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회자 :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 인간 예술가도 다른 작품을 학습하며 예술적 성취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통해 창작하는 AI도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1 : AI는 스스로 의도를 품고 창작하지 않으므로 예술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찬성 1 : 유발 하라리는 창의력이란 아이디어를 이루는 패턴을 파악한 뒤 잘게 나누어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이며, 이것이 AI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조건인 독창성·창의성은 오히려 AI가 뛰어난 분야 아닐까요?

반대 1 :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가 내면에서 겪은 고뇌가 작품에 창의적으로 드러나 감상자를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없는 AI는 경험에서 생기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물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AI의 작품에는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없어 감상자의 내면을 넓히는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7. [7-1] <보기 1>은 토론 전에 청중에게 안내한 쟁점에 따라 위 토론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 1>의 ①, ②, ③에 들어갈 말을 밑글에서 찾아 쓰시오. (단, 각각 1어절로 쓸 것.)

<보기1>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쟁점 1]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어원에는 (①)(이)라는 뜻이 담겨 있으며, 이를 숙련되게 구사하는 존재로 AI만 한 것이 없다.	예술은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려는 주체의 (②)이/가 반영된 활동이다.
[쟁점 2] 예술에서 독창성·창의성은 무엇인가?	창의력은 패턴을 파악해 잘게 나누고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이므로 AI가 잘하는 영역이다.	창작자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고유의 힘과 개성에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쟁점 3] 예술에 감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가?	(직접 다루지 않음)	AI는 작품의 기술적 (③)을/를 높여 줄 수 있으나, 경험에서 생기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감동을 주기 어렵다.

①	
②	
③	

[7-2] <보기 2>를 바탕으로 위 토론의 반대 신문을 평가한 다음 글의 ④, ⑤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에 제시된 논증의 평가 기준에서 찾아 쓰시오. (단, 각각 1어절로 쓸 것.) ‘반대 2’는 ‘찬성 1’이 근거로 든 논문의 출처와 실험 참가자의 대표성을 물어 ‘찬성 1’ 입론의 (④)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찬성 1’은 창의성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견해를 들어, AI는 독창성·창의성을 가질 수 없다는 ‘반대 1’의 주장이 이치에 맞는지를 따지며 ‘반대 1’ 입론의 (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보기2>	
반대 신문은 상대가 구성한 논증이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살피면서 여러 측면에서 질문하여 상대의 입론을 반박하는 단계이다. 상대 주장이 실현될 수 있는지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근거로 든 자료가 믿을 만한지 그 출처를 물을 수도 있다. 반대 신문에 답하는 쪽은 알맞은 근거를 들어 자신이 밝힌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④	
⑤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1114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조직화되지 못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책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는 점진적이고 안정 지향적이다.

신엘리트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무의사 결정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을 의제로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에 잠재적 또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의사 결정은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한다.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첫째는 폭력의 사용이다. 이 수단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의제나 기존 질서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경찰력과 같은 공권력을 사용해 강제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수단이 매우 신중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권력의 행사로,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지배 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적이라고 치부하거나 확립된 절차나 규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억압해 버리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수정하거나 강화하여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에 대한 변화 요구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둘째나 셋째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수단들의 사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프레이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현존하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핵심 쟁점이 선정됐으면,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려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은, 핵심 쟁점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무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과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하여 좌절시킨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8. <보기>는 제시문을 요약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각각 쓰시오.

<보기>

-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는 지배 엘리트들의 (㉠)(이)나 선호가 반영된다.

- 무의사 결정론에 따르면, 지배 엘리트들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의제로 통과시키는 것에 실패하면 그들은 (㉡)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축소한다.

-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 중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이)다. 이 수단은 민주주의 체제와 정보화 시대에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프레이가 제시한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에서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이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조건>

- ㉠, ㉢은 2어절로, ㉡은 3어절로, ㉣은 4어절로 쓰시오.

㉠	
㉡	
㉢	
㉣	

9. $\overline{AB} = \sqrt{6}$, $\overline{BC} = 1$, $\overline{CA} = 3$ 인 삼각형 ABC 에서 선분 BC 를 $5 : 4$ 로 외분하는 점을 D 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26008-0104

- (1) $\cos(\angle ACB)$ 의 값을 구하시오.
- (2) 선분 CD 의 길이와 $\cos(\angle ACD)$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 (3) 선분 AD 의 길이를 구하시오.

(1) 답

(2) 답

(3) 답

10. 두 실수 α, β ($\alpha < \beta$)와 삼차함수 $f(x) = x^3 + 2kx^2 - 4k^2x + 5$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문항 코드 26054-1019

- (가) 함수 $f(x)$ 는 구간 $(-\infty, \alpha]$ 와 구간 $[\beta, \infty)$ 에서 증가하고, 닫힌구간 $[\alpha, \beta]$ 에서 감소한다.
- (나) $-1 < \alpha < 1, \beta > 1$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의 값의 범위가 $a < k < b$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f'(x)$ 를 인수분해하여 $k > 0$ 일 때와 $k < 0$ 일 때 각각 α, β 를 k 로 나타내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 (2) a, b 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 (3) $120 \times a \times b$ 의 값을 구하시오.

(1) 풀이

(1) 답

(2) 답

(3) 답

① 올해 EBS 연습 1회 · 빠른 정답

번호	국어	코드	번호	수학 (최종 답)	코드
1	① 스크프 2 · ② 탄소 발자국, 탄소 손자국 · ③ 실제 배출량 · ④ 기준선 시나리오 · ⑤ 과대 계산, 이중 계산	K2-1227	9	(1) $\frac{2}{3}$ (2) $\overline{CD} = 4, \cos(\angle ACD) = -\frac{2}{3}$ (3) $\sqrt{41}$	26008-0104
2	① ㄴ · ② 멀어지는 · ③ ㄹ · ④ 차심(만)	SMKM-0271	10	(1) $f'(x) = (3x - 2k)(x + 2k)$; $k > 0$ 일 때 $\alpha = -2k, \beta = \frac{2k}{3}$, $k < 0$ 일 때 $\alpha = \frac{2k}{3}, \beta = -2k$ (2) $a = -\frac{3}{2}, b = -\frac{1}{2}$ (3) 90	26054-1019
3	① 파울 크뤼천 · ② 남극 · ③ ㉠ · ④ ㉡	SMKM-0272			
4	㉠ 정합 여부 · ㉡ 혼합 현실 · ㉢ 영역성	K2-1112			
5	① 형식 형태소 · ② 조음 위치 · ③-1 ㉠ · ③-2 ㉡ · ④ 달글	SMKM-0273			
6	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 ② 이발소 가위 소리 · ③ 포로들의 사진 · ④ 낡은 조끼 단추 · ⑤ 병균	K2-2155			
7	① 기술 · ② 의도 · ③ 완성도 · ④ 신뢰성 · ⑤ 타당성	SMKM-0274			
8	㉠ 지배적 가치관 · ㉡ 정책 결정 과정 · ㉢ 폭력의 사용 · ㉣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K2-1114			

풀이와 채점 기준은 다음 쪽부터 문항마다 한 쪽씩 있습니다. 틀린 문항은 코드로 강의를 찾아 보세요.

고쳐 쓰기: 괄호 안 말은 없어도 정답 · 띄어쓰기는 채점하지 않음.

글자 수는 띄어쓰기 · 문장 부호를 빼고 셉니다. ‘○자 이내’는 넘으면, ‘정확히 ○자’는 그 수가 아니면 그 칸은 0점입니다. ‘이내’는 짧아도 내용 조건을 채우면 인정합니다(대학 공식 기준이 따로 있는 문항은 그 기준).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1227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와 회피된 배출

2. 출제 의도

제시문(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을 바탕으로 정리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그대로 옮겨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 6~11번 지문
-------	-----------------------------

4. 문항 해설

제시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분 체계인 스코프와,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재는 ‘회피된 배출’을 이어서 설명한다. ①은 1문단에서 간접 배출 가운데 에너지 구매 활동에 한정된 것을 ‘스코프 2’라 한 대목이 근거이다. 임직원 출장이나 소비자의 제품 사용은 ‘스코프 3’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②는 2문단 끝의 비유로, 배출을 재는 기존 스코프는 ‘탄소 발자국’, 감축 기여를 재는 회피된 배출은 ‘탄소 손자국’에 비유된다. ③과 ④는 3문단의 산정 방식이다. 회피된 배출량은 기준선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량’을 뺀 값이며, 그 기준선을 세울 때의 가정을 ‘기준선 시나리오’라 한다. ⑤는 4문단과 5문단이 각각 ‘첫째’, ‘둘째’로 든 ‘과대 계산’과 ‘이중 계산’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SMKM-0271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시에 나타난 거리와 상처에 대한 역설적 인식

2. 출제 의도

두 현대시의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부정적 상황의 긍정적 이면을 발견하는 역설적 인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 [12문학02-02] 작품을 창작 맥락과 향유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감상한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문학)』 2부 적용 학습 현대시 10 pp.109~111 [26001-0094, 26001-0096] (가) 오세영, 「원시」 (나) 손택수, 「차심」 (재구성)
-------	--

4. 문항 해설

①, ②: (가)의 ‘내 나이의 이별이란 /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에서 화자는 이별을 ‘멀어지는’ 일로 받아들인다. ‘멀리 있는 것은 / 아름답다’는 인식에 따라 이별 역시 아름다운 것이 되므로 이는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 따라서 ㄴ의 ‘사라지는’은 ‘멀어지는’으로 고쳐야 한다.

③, ④: (나)의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 차심만 우려도 차 맛이 난다는데’에서 차 맛을 내는 것은 오랜 세월 찻물이 배어든 ‘차심’이다. 화자는 이를 떠올리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기를 바란다(04번 해설 ①, ⑤). 따라서 ㄹ의 ‘차잎’은 ‘차심’으로 고쳐야 한다.

나머지: ㄱ은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 이제 /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에서 나이 들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02번 해설 ②), ㄷ은 ‘찻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에서 차심을 물이끼로 착각한 잘못된 인식(02번 해설 ③), ㄹ은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고……’에서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금이 오히려 그릇을 단단하게 하는 역설적 인식(04번 ④ 해설)이므로 모두 적절하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SMKM-0272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행사 안내문과 행사 대화의 내용 이해 및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2. 출제 의도

행사 안내문에 제시된 진행 방식이 행사 대화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파악하고, 대화 참여자의 발화가 지닌 의도와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화작02-01]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대화한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실전 모의고사 2회 화법과 작문 p.179 [26051-0144~0145] (재구성)
-------	--

4. 문항 해설

- ①: (나)에서 작가는 인류세가 ‘네덜란드의 대기 과학자 파울 크뤼천이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가)의 진행 순서 2번 ‘주요 용어에 관한 대화’에 해당한다.
- ②: 제작하면서 경각심이 든 순간을 묻자 피디는 ‘남극의 눈 속에서까지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을 때’라고 답하였다. (가)의 진행 순서 3번 ‘다큐멘터리 제작 뒷이야기’에 해당한다.
- ③: ㉠에서 피디는 ‘기후 불평등’을 주제로 한 후속 작업 계획을 밝히며, 기후 위기가 환경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얽힌 문제라는 점을 오늘의 주제인 환경 문제와 관련지었다. 계획을 실행할 때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하는 말은 없다.
- ④: ㉡에서 사회자는 작가가 말한 ‘지구를 쓰는 인류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내용을 ‘지구를 빌려 쓰는 우리가 뒷정리를 잘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질문의 형식(‘~뜻이지요?’)으로 확인하였다. ㉠은 비유적 표현을 썼지만 질문이 아니고, ㉡은 질문이지만 상대의 답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1112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기술 — 증강 현실과 현존감

2. 출제 의도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학습자가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함과 동시에 도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교과서 외	삼육대학교 2024학년도 기출 자연계열1 문제4
교과서 외	『수능특강 독서』(EBS교육방송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3년) 265~266쪽

4. 문항 해설

주어진 제시문은 증강 현실의 정의 및 증강 현실과 혼용되기 쉬운 증강 가상과 증강 현실의 비교, 그리고 증강 현실을 심리학적 공간론과 공간 인지 요소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1문단은 증강 현실의 정의와 증강 현실이 어떠한 가상 환경(몰입형 가상 환경대 비몰입형 가상 환경)을 기반으로 구현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2문단은 증강 현실과 자주 혼용 혹은 비교되는 증강 가상과 증강 현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3문단은 현존감의 정의 및 3가지 차원(감각적 현존감, 공간적 현존감, 사회적 현존감)을 기반으로 증강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4문단은 심리학적 공간론에 근거하여 공간에 대한 3가지 인지 요소인 체험성, 영역성, 사회성이 현존감의 3가지 차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문항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보기>에서 각 부분에 들어갈 정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SMKM-0273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겹받침의 연음과 자음군 단순화

2. 출제 의도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의 연음과 자음군 단순화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단어의 발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연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언어와 매체)』 2부 적용 학습 14 언어 종합 ⑤ pp.102~103 [26004-0095~0096] (재구성)
-------	---

4. 문항 해설

①: 1문단에서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연음이 일어나 뒤 자음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간다고 하였다. 2문단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겪는다고 하였으므로 ‘실질 형태소’는 들어갈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끼리 모인 ‘ㄲ’, ‘ㄸ’은 늘 뒤 자음이 떨어져 [ㄹ]로 소리 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용언 어간 끝의 ‘ㄹ’은 ‘ㄱ’ 앞에서 ‘ㄹ’ 대신 ‘ㄱ’이 떨어져 [ㄹ]로 소리 난다고 하였다. ‘밝고’는 용언 어간 ‘밝-’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므로 ‘ㄹ’은 [ㄹ]로 소리 난다. 따라서 ㉠의 ‘ㄱ’은 ‘ㄹ’로 고쳐야 한다.

㉠은 ‘ㄱ’이 [ㄱ]으로(2문단), ㉡은 ‘ㄸ’이 원칙대로 [ㄹ]로, ㉢은 ‘밝-’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ㅂ]으로, ㉣은 ‘ㄹ’이 떨어져 고 남은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으로 소리 나는 것이므로(3문단) 모두 적절하다.

④: 1문단에 따르면 ‘닭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을’이 결합한 것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연음이 일어나, 겹받침의 앞 자음 ‘ㄹ’은 앞 음절의 종성으로 남고 뒤 자음 ‘ㄱ’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 [달글]로 발음한다. [다글]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2155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 수필 — 이상, 「산촌 여정」

2. 출제 의도

산촌의 풍경을 도회의 사물에 빗댄 비유 표현을 감상문의 서술과 대응시켜 조건에 맞게 찾아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문학)』 원문 문항 001~003
-------	--

4. 문항 해설

산촌의 풍경을 도회의 사물로 바꾸어 놓는 이 글의 비유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등잔에 올라앉은 베짚이의 울음을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이라 하고, 다시 그것이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진다고 하여 하나의 소리를 도회의 두 사물로 옮겨 놓는다. 꿈에 나타난 식구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라고 하여, 가족을 향한 걱정이 곧 붙잡힌 이들의 사진이라는 무거운 인상으로 바뀐다. 아침에는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의 자취를 ‘남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라고 적고, 마당의 새빨간 잠자리를 ‘병균처럼 활동입니다’라고 표현한다. 다섯 비유는 모두 산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옮겨 적은 것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SMKM-0274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토론의 쟁점별 주장 파악과 반대 신문의 평가

2. 출제 의도

‘AI도 예술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토론에서 쟁점별 찬반 주장을 정리하고, 반대 신문이 상대 입론의 어떤 측면을 문제 삼았는지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화학02-07]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화법과 작문)』 2부 적용 학습 01 화법 p.37 [26003-0017~0018] (재구성)
-------	--

4. 문항 해설

-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예’와 ‘술’에는 본래 과제를 능숙하게 해내는 방도, 곧 ‘기술’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며, 숙련된 기술을 구사하는 존재로 AI만 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 ②: 반대 1은 입론에서 AI의 작품에는 ‘미적 가치를 이루려는 주체의 의도’가 없으므로 AI를 예술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AI는 인간의 명령과 학습 체계에 따라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주는 도구’라고 하였고, 반대 신문 답변에서 AI는 경험에서 생기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감동을 주기 어렵다고 하였다.
- ④: <보기 2>에 따르면 근거로 든 자료가 믿을 만한지 출처를 묻는 것은 논증의 신뢰성을 살피는 질문이다. 반대 2는 논문의 출처와 참가자의 대표성을 물었으므로 찬성 1 입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 ⑤: 찬성 1은 창의력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견해를 들어, AI가 독창성·창의성을 가질 수 없다는 반대 1 입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상대 주장이 이치에 맞는지를 따진 것이며, 논증이 어느 한쪽에 치우쳤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므로 ‘공정성’은 알맞지 않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1114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 — 신엘리트론과 무의사 결정론

2. 출제 의도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의 역사적 특성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3. 출제 근거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교과서 외	삼육대학교 2026학년도 기출 인문 문제4
교과서 외	EBS 『수능특강 독서』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126~127쪽

4. 문항 해설

신엘리트론에 관한 내용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선호에 맞게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무의사 결정을 통해 일반적인 정책 과정 모두에서 자신들의 의견만 반영시켜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과 수단(폭력의 사용, 권력의 행사,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 집단은 의제 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의제만 통과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축소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제가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 프레이는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이유는 무의사 결정 수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프레이는 핵심 쟁점의 선정,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당화, 방지 권력 체계의 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무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26008-0104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코사인법칙과 선분의 외분

2. 출제 의도

코사인법칙으로 삼각형의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선분의 외분점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각의 코사인 값과 코사인법칙으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수학 I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수학 I』 (상명대 논술 형식으로 고침)
-------	--

4. 문항 해설

(1)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angle ACB) = \frac{\overline{CA}^2 + \overline{BC}^2 - \overline{AB}^2}{2 \times \overline{CA} \times \overline{BC}} = \frac{9 + 1 - 6}{2 \times 3 \times 1} = \frac{2}{3}$$

(2) 점 D는 선분 BC를 5 : 4로 외분하므로 점 C에 대하여 점 B의 반대쪽 반직선 위에 있고 $\overline{BD} : \overline{CD} = 5 : 4$ 이다.

$\overline{BD} = \overline{BC} + \overline{CD} = 1 + \overline{CD}$ 이므로 $4(1 + \overline{CD}) = 5\overline{CD}$ 에서 $\overline{CD} = 4$ 이다. 또 $\angle ACD = \pi - \angle ACB$ 이므로

$$\cos(\angle ACD) = -\cos(\angle ACB) = -\frac{2}{3}$$

(3)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overline{AD}^2 = 3^2 + 4^2 - 2 \times 3 \times 4 \times \left(-\frac{2}{3}\right) = 25 + 16 = 41$$

이므로 $\overline{AD} = \sqrt{41}$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26054-1019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삼차함수가 증가·감소하는 구간과 도함수의 부호

2. 출제 의도

도함수를 인수분해하여 삼차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의 양 끝을 매개변수 k 로 나타내고, k 의 부호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k 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 [12수학II 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2수학II 02-04]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수학영역 수학 I·수학 II』 (상명대 논술 형식으로 고침)
-------	--

4. 문항 해설

- (1) $f'(x) = 3x^2 + 4kx - 4k^2 = (3x - 2k)(x + 2k)$ 이다. $k = 0$ 이면 $f'(x) = 3x^2 \geq 0$ 이므로 $f(x)$ 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여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alpha < \beta$ 가 없다. 따라서 $k \neq 0$ 이고, 이때 $f'(x) = 0$ 의 서로 다른 두 실근 $\frac{2k}{3}$, $-2k$ 사이에서 $f'(x) < 0$, 그 바깥에서 $f'(x) > 0$ 이므로 α, β 는 이 두 실근 중 작은 값, 큰 값이다. (i) $k > 0$ 일 때 $-2k < \frac{2k}{3}$ 이므로 $\alpha = -2k$, $\beta = \frac{2k}{3}$ (ii) $k < 0$ 일 때 $\frac{2k}{3} < -2k$ 이므로 $\alpha = \frac{2k}{3}$, $\beta = -2k$
- (2) (i) $k > 0$ 일 때 $-1 < -2k < 1$ 에서 $0 < k < \frac{1}{2}$ 이고, $\frac{2k}{3} > 1$ 에서 $k > \frac{3}{2}$ 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k 가 없다. (ii) $k < 0$ 일 때 $-1 < \frac{2k}{3} < 1$ 에서 $-\frac{3}{2} < k < 0$ 이고, $-2k > 1$ 에서 $k < -\frac{1}{2}$ 이므로 $-\frac{3}{2} < k < -\frac{1}{2}$ 이다. 따라서 $a = -\frac{3}{2}$, $b = -\frac{1}{2}$
- (3) $120 \times a \times b = 120 \times \left(-\frac{3}{2}\right) \times \left(-\frac{1}{2}\right) = 120 \times \frac{3}{4} = 90$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2

가천대·상명대 자연 계열 기출

같은 영역의 가천대학교 논술고사 국어 기출(2024·2025학년도)과 상명대학교 수시 논술고사 자연 계열 국어(2025학년도 B)·수학(2026학년도 B)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명대 문항의 해설은 대학 문항카드를, 가천대 문항의 해설은 가천대가 공개한 문항 해설을 옮겼습니다.

문항	국어 8 · 수학 2 (각 10점)
시간	60분
문제	62쪽부터
해설	72쪽부터

푸는 순서

- 1. 실제 시험처럼 60분을 재고 풋니다.
- 2. 답은 문항 아래 칸에 씁니다.
- 3. 채점 기준으로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고, ①에서 연습한 유형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합니다.

시작 시각 ____ : ____ 종료 시각 ____ : ____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681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은 어떤 원리로 물건의 무게를 측정할까? 양팔저울과 대저울은 지레의 원리를 응용한다. 양팔저울은 지렛대의 중양을 받침점으로 하고, 양쪽의 똑같은 위치에 접시를 매달거나 올려놓은 것이다. 한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놓고, 다른 한쪽 접시에는 추를 놓아 지렛대가 수평을 이루었을 때 추의 무게가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 그러나 양팔저울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한 것이 대저울이다. 대저울은 받침점에 가까운 곳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걸고 반대쪽에는 작은 추를 걸어 움직여서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물체의 무게’×‘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 ‘추의 무게’×‘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이므로 받침점으로부터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알면 물체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다.

전자저울은 스트레인을 감지하는 장치인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된 무게 측정 소자를 작동 원리로 한다. 무게 측정 소자는 금속 탄성체로 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금속 탄성체에는 스트레스에 따라 스트레인이 발생한다. 여기서 스트레스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압력과 동일하며, 스트레인이란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의 변화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의 변화량을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스트레스에 따라 금속 탄성체는 인장 변형이 일어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는 스트레인에 따른 저항 변화가 일어난다.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기 저항은 그 스트레인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저항 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증폭 회로를 통해 약 100~200배를 증폭시키고 전기 신호로 전환한 다음,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전자저울의 지시계에 물체의 무게가 나타나게 된다. 전자저울에서 금속 탄성체는 가해진 스트레스에 대해 일정한 스트레인을 발생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시간에 따라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탄성의 한계점이 높아야 한다.

1. <보기1>은 실험 결과이고, <보기2>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1>에 대한 탐구 활동을 실시한 것이다. <보기2>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쓰시오.

<보기1>

- 대저울의 받침점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0kg의 추를 걸어 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물체 ㉠을 걸었을 때, 대저울의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었다.
-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 A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이다. 전자저울 A에 10kg의 상자를 올렸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2cm가 늘어났다.

<보기2>

<보기1>에서 물체 ㉠의 무게는 (①)kg이고, 물체 ㉠을 <보기1>의 전자저울 A에 올려 놓으면 전자저울 A의 금속 탄성체의 전체 길이는 (②)cm가 될 것이다.

①	
②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693

[앞부분 줄거리]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김창호: 동진 광업소 동 5 갯에 묻혀 있던 광부 김창호.

홍 기자: 아? 김창호 씨?

김창호: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홍 기자: 그런데 뭐 볼일 있수? 나 지금 바쁜데…….

김창호: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홍 기자: (돌아서서 5천 원짜리 주며) 이거 가지구 가시우,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면 거기서 사람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를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김창호: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소?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यो, 서울시장도 나한테…….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잃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퇴장한다.)

홍 기자: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긴요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중략)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 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에 라이트 비친다.)

홍 기자: 여기는 강원도 정선군 동민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광부 34명이 매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광부 중 폭발한 갱구 아래 쪽 대피소에 있던 배관공 22세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 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 난 갱구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따리를 멘 김창호 일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잠깐만!

(이불 보따리를 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다.)

홍 기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매물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물로 16일간 굴속에 갇혀 있다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며 박수친다. 김창호 처음에는 머뭇거린다. 웃으며 손을 들어 답례한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천 2백 미터 갱내 대피소에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갱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김창호: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났다.)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움직이지 않음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펌프로 공기도 계속 넣어 줘야 되구요.

(그사이 기자 한 사람 뛰어나와서 홍 기자에게 귀엣말한다. 홍 기자 마이크 뺏어 자기 말을 한다.)

홍 기자: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포클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의 한 부분을 들어내어 매몰된 인부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싱겁게 끝나는군. 이런 걸 특종이라구 취재하다니, 자, 갑시다.

- 윤대성, 「출세기」

2.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보기>의 ①에 들어갈 적절한 말, 그리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출세기」는 언론에 의해 작중 인물 ‘(①)’이/가 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중 인물 ‘(①)’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는 언론의 습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너진 갯구에서 16일 만에 구출 → 기사 소재가 됨 → 관심, 인터뷰

금전적 도움 요청 → 기사 소재 안 됨 → 무관심

광부 매장 사건 발생 → 기사 소재가 됨 → 관심, 인터뷰

광부 구출 → 기사 소재 안 됨 → 무관심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 인물의 대사 ‘(②)’을/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①		
②	첫 어절:	마지막 어절:

「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726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인 플리바게닝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1: 저희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리바게닝이 도입된다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므로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줄어들어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범죄 수사 및 형량 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2: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나요?

찬성1: 네, 맞습니다.

반대2: 만약 범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대신에 수사 협조라는 수단을 통해 형량을 흥정하게 된다면 법에 근거해야 하는 사회적 질서가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요?

찬성1: 아닙니다. 수사 협조에 따른 형량 감경 정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해 두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릴 염려는 없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1: 저희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사의 편의를 추구하고자 적법한 범죄 입증 과정 없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잘못된 수사로 이어지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3. <보기1>은 교사가 토론 전에 소개한 토론의 쟁점이고, <보기2>는 청중들이 <보기1>을 바탕으로 토론 과정을 이해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2>의 밑줄 친 ㉠과 ㉡이 ㉢과 같은 형식이 되도록 ①, ②, ③, ④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기1>

[쟁점1] 플리바게닝은 사회적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

[쟁점2] 플리바게닝은 범죄 수사에 투입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보기2>

- ㉠'반대1'은 '쟁점1'과 관련하여, 적법한 범죄 입증 절차 없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므로 사회적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군.
- ㉡'㉠'은/는 '㉡'와/과 관련하여, 범죄 입증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군.
- ㉢'㉢'은/는 '㉣'와/과 관련하여, 범죄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줄어 사회적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군.

①	
②	
③	
④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712

명목 화폐란 화폐의 겉면인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단위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하며, 표시되어 있는 가격을 명목 가치라 한다. 조선은 명목 화폐를 발행했는데, 화폐의 액면 가격에 제조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인 주조 차익을 남기면 재정 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 당시 민간에는 미포(米布), 즉 쌀과 베라는 물품 화폐가 두루 쓰이고 있었다. 세종은 주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중국을 보고 구리로 만든 주화를 도입했다. 주화는 위조가 어렵고 구리의 양에 따른 실질 가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설서의 관장 아래 1425년에 조선통보를 발행하면서 주화 1문*의 명목 가치는 쌀 1되* 또는 저화 1/2장으로 정했다. 그런데 화폐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백성들은 주화를 신뢰하지 않았고 물품 화폐를 더 선호했다. 그 결과 주화의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보다 낮아져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 발행 다섯 달 후 시장에서는 주화 3문이 쌀 1되로 거래되고 주화로 표시한 포 가격 역시 상승했다. 또한 주화가 제작되면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 구리의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주화의 명목 가치와 재료의 실질 가치의 차이를 이용해 주화를 녹여 구리 상태로 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있었다. 주화로 표시한 물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화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했으므로, 세종은 관청이 가지고 있는 쌀인 국고미를 시장에 팔아 주화를 환수했다. 하지만 물품 화폐가 더 선호되는 상황에서는 주화를 환수해도 실질 가치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중에 쌀이 늘어난 만큼 주화로 표시한 쌀 가격만 하락하고 포나 구리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쌀 대신 포를 화폐로 삼는 백성들만 늘었고 결국 주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17세기부터는 상업의 확대로 인해 백성들은 고액 거래나 가치의 저장이 쉬운 화폐가 필요했다. 또한 당시 조선은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했으므로 숙종은 1678년부터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이때의 상평통보를 ‘초주단자전’이라 하고 명목 가치는 은 1냥*당 주화 400문으로 정했다. 그리고 상평통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목 가치에 따라 언제든지 관청에서 주화와 은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구리는 국내 생산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받고 있었으나 늘어나는 주화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부족했다. 그래서 초주단자전 발행 이듬해에 ‘대형전’을 발행했는데, 이는 초주단자전보다 구리의 양은 두 배 늘리고 은 1냥을 주화 100문과 교환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일부 부유한 상인들은 자산 축적의 목적으로 주화를 집 안에 쌓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에 화폐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부족한 현상인 전황(錢荒)이 발생하여 주화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기 위해 1752년 영조 때 초주단자전에 비해 구리의 양을 줄인 ‘중형전’이 발행됐다. 발행 당시 은 1냥당 주화 100문으로 정했으므로 중형전의 발행은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후 100년 넘게 더 이어진 상평통보의 사용으로 거래의 수단으로는 물품이 아닌 돈이 자리 잡게 되었다.

*주화: 쇠붙이를 녹여 화폐를 만들, 또는 그 화폐.

*문: 조선 시대에 화폐를 세던 단위.

*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한 되는 한 말의 1/10임.

*냥: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무게의 단위.

4.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을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1679년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1678년에 발행된 상평통보에 비해 (①) 가치가 상승했다.
- 발행 당시 명목 가치는 중형전과 대형전이 다르지 않았지만 주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의 양은 중형전과 대형전 중 (②)이/가 더 많았다.

①	
②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25상명자연B10

(가)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국어에는 10개의 단모음이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는 모음이다. 이들은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의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꺄	ㅡ	ㅓ
중모음	ㅕ	ㅖ	ㅗ	ㅜ
저모음	ㅗ		ㅓ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모음을 전설 모음, 뒤쪽에 있는 모음을 후설 모음이라고 하고, 혀의 최고점이 높은 모음을 고모음, 낮은 모음을 저모음, 그 중간인 모음을 중모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되는 모음을 원순 모음, 그렇지 않은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한다.

(나)

선생님: 표준어의 단모음은 10개로,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료]의 ㉠~㉤은 선생님이 세 기준을 활용하여 표준어의 단모음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단모음을 각각 발음해 보고, 함께 묶인 단모음들이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지 말해 봅시다.

< 자 료 >

㉠ 꺄,ㅖ,ㅓ,ㅜ ㉡ ㅣ,ㅕ,ㅗ,ㅓ ㉢ ㅣ,ㅖ,ㅡ,ㅓ ㉣ ㅣ,ㅕ,ㅗ,ㅓ,ㅜ,ㅗ ㉤ ㅗ,ㅓ

학생 1: ㉠은 모두 (㉡)을/를 동그랗게 오므리는 것끼리 분류한 것이네요.

학생 2: ㉡은 혀가 (㉢)에 위치하는 것끼리 분류한 것입니다.

학생 3: ㉢은 혀의 최고점이 (㉣) 것끼리 분류한 것이군요.

학생 4: ㉣은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 것끼리 분류한 것이네요.

학생 5: ㉤은 혀의 최고점이 가장 낮은 것끼리 분류한 것이지요.

5. (가)는 지난 수업 시간에 학습한 한국어 모음 체계를 정리한 것이고, (나)는 선생님의 발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가)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715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6. <보기2>는 <보기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것이다. 제시문에서 <보기2>의 ㉠, ㉡이 나타나는 연을 찾아 각 연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보기1>

성찰이란 타자화된 시선, 즉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를 교차시키면서 부끄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대면을 통해 자기 변화를 도모하거나 부정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찰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이어 가야 할 가치를 전승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보기2>

이 시의 화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성찰의 순간을, 거울을 닦는 행위를 통해 성찰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의 성찰은 이중적인 양상으로 제시되는데, 자아가 놓인 치욕스러운 현실과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하나라면 ㉠현재의 부끄러운 고백을 다시 부끄럽게 떠올릴 미래에 대한 성찰이 또 다른 하나이다. 이 두 성찰을 제시한 후 화자는 끊임없이 거울을 닦으며 성찰에의 의지를 다진다. 하지만 화자에게 현실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독과 비애를 끌어 안고 걸어나가겠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①	㉠이 나타난 연 첫 어절:	마지막 어절:
②	㉡이 나타난 연 첫 어절:	마지막 어절:

「7」 다음은 상담 전문가의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694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전문가 ○○○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나-전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너-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너-전달법은 ‘너’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고 평가하게 되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전달법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해 전달합니다.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감정에서는 이런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 나-전달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언급할 때에는 문장의 주어를 ‘나’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부정적인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아 상대방의 반발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너-전달법처럼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끝으로 기대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보기>는 위 강연을 들은 청자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고, ㉡의 표현 효과를 [A]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어제 민수가 도서관에서 떠들었을 때, “민수야, 너는 왜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니?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시험을 망치면 나는 너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민수야, 친구와 할 얘기가 있으면 도서관에 오지 마.”라고 했어.

앞으로는 ‘(㉠)-전달법’에 따라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이 돼. 그러니 민수야, 친구와 할 얘기가 있으면 휴게실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야겠어.

①	㉠:	
②	첫 어절:	마지막 어절: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코드 K2-4737

공공재란 공원이나 경찰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배제성과 경합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배제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은 두 명인데 빵이 한 개라면 한 사람은 빵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빵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며, 공중파 방송은 누군가 시청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시청할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는 서비스이다.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식, 자동차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로 클럽재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셋째로 공유 자원은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강에 사는 물고기와 같은 자연 자원이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가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 도로와 일반 도로가 바로 그 예가 될 수 있다. 고속 도로는 통행 요금을 받지만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런데 가끔 특정한 이유로 고속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사람의 고속 도로 이용에 의해 다른 사람이 제대로 고속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길이 좁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심야에는 일반 도로도 이용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때 ‘한산한 고속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꽉 막힌 고속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일반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야의 일반 도로’는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재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공공재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도 비용을 들여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산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배제성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한다.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공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 및 공급하게 된다.

8. 문맥상 제시문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 자원, 공공재	
㉠	
㉡	
㉢	
㉣	

문항 코드 26상명자연B01

9. 1이 아닌 두 자연수 a, b 에 대하여 $a : b = 2 : 1$ 이고, 직선 $y = 3$ 과 세 함수 $y = \log_2 x, y = \log_a x, y = \log_b x$ 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 하자. $\overline{AC} : \overline{BC} = 1 : 8$ 을 만족시킬 때,

- (1) $\sqrt{a^3 + b^3}$ 의 값을 구하시오.
- (2) 선분 $\overline{AB}$ 의 길이를 구하시오.
- (3)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

(1) 답		(2) 답		(3) 답	
-------	--	-------	--	-------	--

문항 코드 26상명자연B07

1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1} \frac{f(x)}{x - 1}$ 의 값이 존재하고, 미분가능한 함수 $g(x)$ 의 도함수가 $g'(x) = f(|x + 5|) - f(|x|)$ 이다. 함수 $g(x)$ 가 $x = \frac{1}{2}$ 에서 극솟값을 가질 때,

- (1) 이차함수 $f(x)$ 를 구하시오.
- (2) $x_0 \neq \frac{1}{2}$ 이고 $g'(x_0) = 0$ 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x_0 = \alpha$ 와 $x_0 = \beta$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lpha < \beta$)
- (3) 함수 $g(x)$ 가 극댓값을 갖도록 하는 x 의 값을 정확히 구하시오.

(2) 풀이

(1) 답		(2) 답		(3) 답	
-------	--	-------	--	-------	--

② 가천대·상명대 자연 계열 기출 · 빠른 정답

번호	국어	코드	번호	수학 (최종 답)	코드
1	① 15 (kg) · ② 13 (cm)	K2-4681	9	(1) 24 (2) 504 (3) (64, 3)	26상명자연B01
2	① 김창호 · ② 그러나, 것이다	K2-4693	10	(1) $f(x) = x^2 - 6x + 5$ (2) $\alpha = -\frac{11}{2}, \beta = -\frac{5}{2}$ (3) $x = -\frac{5}{2}$	26상명자연B07
3	① 찬성1 · ② 쟁점2 · ③ 찬성1 · ④ 쟁점1	K2-4726			
4	① ‘명목 (가치)’ 또는 ‘액면 (가치)’ · ② 대형전	K2-4712			
5	① 입술 · ② 앞쪽 · ③ 가장 높은	25상명자연B10			
6	① 내일이나, 했던가 · ② 그러면, 온다	K2-4715			
7	① 나 · ② 그래야, 때문입니다	K2-4694			
8	㉠ 클럽재 · ㉡ 사적 재화 · ㉢ 공유 자원 · ㉣ 공공재	K2-4737			

풀이와 채점 기준은 다음 쪽부터 문항마다 한 쪽씩 있습니다. 틀린 문항은 코드로 강의를 찾아 보세요.

글자 수는 띄어쓰기 · 문장 부호를 빼고 셉니다. ‘○자 이내’는 넘으면, ‘정확히 ○자’는 그 수가 아니면 그 칸은 0점입니다. ‘이내’는 짧아도 내용 조건을 채우면 인정합니다(대학 공식 기준이 따로 있는 문항은 그 기준).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681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기술 — 다양한 저울의 측정 원리

2. 출제 의도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고사 인문 5번
교과서 외	EBS 『수능특강』 (EBS, 2023) 195~198쪽

4. 문항 해설

- ① 제시문에서 ‘물체의 무게’×‘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 ‘추의 무게’×‘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라고 했다. <보기1>의 첫 번째 실험결과에서 왼쪽으로 30cm 떨어진 위치에 10kg의 추를 걸어 두고, 받침점에서 오른쪽으로 20cm 떨어진 위치에 물체 ㉠을 걸었을 때, 대저울의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었다고 했다. 제시문에서 ‘물체의 무게’×‘받침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 = ‘추의 무게’×‘받침점과 추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므로, 물체 ㉠의 무게는 15kg이 된다.
- ② 제시문에 의하면 전자저울의 금속탄성체에는 가해지는 압력, 즉 무게에 비례하여 인장 변형이 일어난다. <보기2>의 두 번째 실험 결과에서 아무런 물체도 올려놓지 않은 전자저울 A의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10cm이고, 전자저울 A에 10kg의 상자를 올렸을 때, 금속 탄성체의 길이는 2cm가 늘어났다고 했으므로, 전자저울 A의 금속탄성체는 5kg의 무게가 가해질 때마다 1cm씩 길이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게가 15kg인 물체 ㉠을 전자저울 A 위에 올려 놓으면 전자저울 A의 금속탄성체의 길이는 3cm가 늘어날 것이다.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금속탄성체의 길이가 10cm이므로, 전자저울 A에 물체 ㉠을 올려 놓았을 때, 전자저울 A의 금속탄성체의 전체 길이는 13cm가 된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693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희곡 — 윤대성, 「출세기」의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2. 출제 의도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작품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고사 자연 5번
교과서 외	EBS 『수능특강』 (EBS, 2023) 23~25쪽

4. 문항 해설

- ①: 도식화된 표는 흥 기자가 기사의 소재가 될 때만 김창호에게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하며, 기사의 소재가 되지 않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음을 정리한 것이다.
- ②: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마스크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에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작품의 메시지가 드러나 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726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화법 — 반대 신문식 토론의 과정, 쟁점, 입론

2. 출제 의도

반대 신문식 토론의 과정을 이해하고, 입론 단계에서 쟁점과 관련하여 각 토론자들이 제시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5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B형 1번
교과서 외	EBS 『수능특강』 (EBS, 2024) 35~38쪽

4. 문항 해설

범죄 입증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찬성1’이고, 관련된 쟁점은 ‘쟁점2’이다. 범죄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줄어 사회적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찬성1’이고, 관련된 쟁점은 ‘쟁점1’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712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인문·사회 — 조선시대 화폐와 상평통보

2. 출제 의도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고사 자연 2번
교과서 외	EBS 『수능완성』 (EBS, 2023) 162~163쪽

4. 문항 해설

상평통보 가운데 초주단자전과 대형전의 발행 당시의 명목 가치를 비교하면 대형전이 더 크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중형전과 대형전의 발행 당시 필요한 구리의 양은 대형전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25상명자연B10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음운, 모음,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2. 출제 의도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체계로 구조화되어 있다. 국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사용, 담화의 효과적인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해 한국어 언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한국어의 소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출제 근거

- [10국04-02]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기출	상명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자연 B 10번
교과서 외	수능특강(언어와 매체), EBS, 교육방송 편집부, 2024, 54쪽 (제시문)

4. 문항 해설

(가)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 주어진 선생님의 모음 분류표의 개별 항목의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은 원순모음, ㉡은 전설모음, ㉢은 고모음, ㉣은 평순모음, 그리고 ㉤은 저모음으로 묶을 수 있는 모음들로 이들의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에 따른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빈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음.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715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시 — 윤동주, 「참회록」의 화자와 시적 성찰

2. 출제 의도

제시문의 현대시의 구성요소들을 통한 작품의 이해와 향수 능력을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고사 자연 6번
교과서 외	EBS 『수능특강』 (EBS, 2023) 91~94쪽

4. 문항 해설

윤동주의 「참회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자기성찰을 밀고나간 작품이다. 이 작품의 특이점은 그 성찰이 시의 화자에 의해서 통시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애 전체에 대한 자기 이해를 이루고, 이로써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견디고자하는 자기 각성에 이른다는 점이다.

<보기2>의 ㉠현재의 부끄러운 고백을 다시 부끄럽게 떠올릴 미래에 대한 성찰은 작품의 3연에,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독과 비애를 끌어 안고 걸어나가겠다는 삶의 태도는 이 작품의 5연에 잘 나타나고 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694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화법 — 강연(나-전달법)의 내용 이해와 표현

2. 출제 의도

강연에서의 정확한 내용 이해에 따른 표현 능력을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A형 1번
교과서 외	EBS 『수능특강』 (EBS, 2023) 18~19쪽

4. 문항 해설

<보기>의 “민수야, 너는 왜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니?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시험을 망치면 나는 너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민수야, 친구와 할 얘기가 있으면 도서관에 오지 마.”라는 표현은 ‘나-전달법’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나-전달법’에 따라 수정한 문장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떠드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아.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해 내일 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이 돼. 그러니 민수야, 친구와 할 얘기가 있으면 휴게실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이다. 이 중, ㉠으로 바꾸어 표현한 효과는 [A]의 “그래야 상대방이 부정적인 문장의 주어가 되지 않아 상대방의 반발심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에 나타나 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K2-4737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 — 공공재의 특성과 시장 실패

2. 출제 의도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 출제 근거

기출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논술고사 자연 4번
교과서 외	EBS 『수능완성』 (EBS, 2023) 186~188쪽

4. 문항 해설

- ㉠ ‘한산한 고속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개인의 고속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고속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산한 고속도로’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클럽재의 성격을 가진다.
- ㉡ ‘꽉 막힌 고속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개인의 고속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고속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한산한 고속도로’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는 사적재화의 성격을 가진다.
- ㉢ ‘출퇴근 시간의 일반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일반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일반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의 일반도로’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진다.
- ㉣ ‘심야의 일반도로’는 이용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일반도로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일반도로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따라서 ‘심야의 일반도로’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일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26상명자연B01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 출제 의도

1.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려 교점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출제 근거

-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출	상명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자연 B 1번
교과서 내	『수학 I』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51쪽
교과서 외	『수능완성(수학 I · 수학 II · 확률과 통계)』 EBS 편집부, EBS, 2025, 11쪽

4. 문항 해설

- (1) $a : b = 2 : 1$ 이므로 $a = 2b$ ($a > b$) $\cdots$ ㉠ 점 A, B, C의 좌표를 각각 구하면 $A(2^3, 3)$, $B(a^3, 3)$, $C(b^3, 3)$ 이다. $\overline{AC} : \overline{BC} = 1 : 8$ 이므로, $|2^3 - b^3| : |a^3 - b^3| = 1 : 8 \cdots$ ㉡ 식 ㉠에서 $|a^3 - b^3| = a^3 - b^3 = 7b^3$ 이다. (i) $0 < b < 2$ ($b \neq 1$)인 경우 식 ㉡을 정리하면 $7b^3 = 8(2^3 - b^3)$ 이고, $b^3 = \frac{64}{15}$ 이므로 자연수가 아니어서 가정에 모순이다. (ii) $b = 2$ 인 경우는 $A = B$ 이므로 $\overline{AC} : \overline{BC} = 1 : 8$ 이 성립하지 않는다. (iii) $b > 2$ 인 경우 식 ㉡을 정리하면 $7b^3 = 8(b^3 - 2^3)$ 이고, $b^3 = 64$ 이므로 $b = 4$ 이다. 식 ㉠에 의하여 $a = 2b = 8$ 이다. 따라서 $\sqrt{a^3 + b^3} = 24$ 이다.
- (2) 문제 (1)에 의하여 점 A, B의 좌표를 구하면 $A(8, 3)$, $B(512, 3)$ 이므로 선분 $\overline{AB}$ 의 길이는 $512 - 8 = 504$ 이다.
- (3) C의 좌표는 $C(b^3, 3) = (64, 3)$ 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1. 일반 정보

문항 코드	26상명자연B07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도함수의 활용, 극대 극소

2. 출제 의도

1. 함수의 대칭이동을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다. 2.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고 이를 문제에 활용할 수 있다. 3.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함수의 개형을 파악한다.

3. 출제 근거

- [12수학 II 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12수학 II 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기출	상명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자연 B 7번
교과서 내	『수학 I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육, 2018, 81, 87쪽
교과서 내	『수학 II』 김원경 외 14인, 비상교육, 2018, 60쪽
교과서 외	『수능완성(수학 I · 수학 II · 확률과 통계)』 EBS 편집부, EBS, 2025, 123쪽

4. 문항 해설

(1) 함수 $g(x)$ 가 $x = \frac{1}{2}$ 에서 극소이므로 $g'\left(\frac{1}{2}\right) = f\left(\frac{11}{2}\right) - f\left(\frac{1}{2}\right) = 0$ 이다. 즉, $f\left(\frac{11}{2}\right) = f\left(\frac{1}{2}\right) \dots \textcircled{7}$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 함수 $f(x)$ 이고 식 $\textcircled{7}$ 에 의하여 함수 $y = f(x)$ 의 그래프는 직선 $x = 3$ 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f(x) = (x - 3)^2 + k$ (k 는 상수)이다. 가정에 의하여 $\lim_{x \rightarrow 1} \frac{f(x)}{x - 1}$ 가 존재하므로 $f(1) = 0$ 이며 $k = -4$ 이다. 따라서 $f(x) = (x - 3)^2 - 4 = (x - 1)(x - 5)$ 이다.

(2) $f(|x|) = \begin{cases} (x - 1)(x - 5) & (x \geq 0) \\ (x + 1)(x + 5) & (x < 0) \end{cases}$ 이고 $f(|x + 5|) = \begin{cases} x(x + 4) & (x \geq -5) \\ (x + 6)(x + 10) & (x < -5) \end{cases}$ 이다. $g'(x) = f(|x + 5|) - f(|x|) = 0$ 에 의하여, $f(|x + 5|) = f(|x|)$ 을 만족시키는 x 의 값을 찾고자 한다. (i) $x < -5$ 일 때 $(x + 1)(x + 5) = (x + 6)(x + 10)$ 에서 $x^2 + 6x + 5 = x^2 + 16x + 60$ 이므로 $x = -\frac{11}{2}$ 이다. (ii) $-5 \leq x < 0$ 일 때 $(x + 1)(x + 5) = x(x + 4)$ 에서 $x^2 + 6x + 5 = x^2 + 4x$ 이므로 $x = -\frac{5}{2}$ 이다. (iii) $x \geq 0$ 일 때 $(x - 1)(x - 5) = x(x + 4)$ 에서 $x^2 - 6x + 5 = x^2 + 4x$ 이므로 $x = \frac{1}{2}$ 이다. 따라서 $g'(x) = 0$ 의 해는 $x = -\frac{11}{2}$ 또는 $x = -\frac{5}{2}$ 또는 $x = \frac{1}{2}$ 이다. 이때, $x_0 \neq \frac{1}{2}$ 이고 $\alpha < \beta$ 이므로 $\alpha = -\frac{11}{2}$, $\beta = -\frac{5}{2}$ 이다.

(3) 함수 $g(x)$ 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dots$	$-\frac{11}{2}$	$\dots$	$-\frac{5}{2}$	$\dots$	$\frac{1}{2}$	$\dots$
$g'(x)$	$-$	0	$+$	0	$-$	0	$+$
$g(x)$	$\searrow$	극소	$\nearrow$	극대	$\searrow$	극소	$\nearrow$

위 증감표에 의하여 함수 $g(x)$ 의 극

대를 갖는 점의 x 좌표는 $x = -\frac{5}{2}$ 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2027학년도

막차수학 상명대 인문 오프라인 모의고사

국어 8문항 · 수학 2문항 · 60분 · 각 문항 10점

[수험생 유의사항]

1. 검은색 볼펜 또는 컴퓨터용사인펜만 사용합니다(문제지 포함). 샤프·연필은 답안지 스캔 때 번지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답안을 고칠 때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합니다(수정액 사용 불가).
3. 답안은 답안지의 문항별 박스 안에만 씁니다. 지정된 영역을 벗어난 답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세부분항이 있는 경우 답안지에 세부분항 번호[①, ②... / (1), (2)...]를 반드시 쓰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5. 문제지 번호와 답안지 번호가 다르면 오답으로 처리합니다.
6. 개인 연습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과 메모는 문제지 표지 뒷면과 여백에 합니다.
7. 시험 중 중도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출제 · 해설: 막차수학 원장 한정호

(이 면은 비워 두었습니다 — 연습 가능)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인간인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즉 인격을 갖는다. 반면 단체나 재산에도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법인의 성립에 정관* 작성과 설립 등기*를 ㉠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마친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인 법인격을 취득한다. 한편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법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

자연인은 사망에 의해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만 법인은 별도의 소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멸 절차는 해산과 청산으로 나뉜다. 해산은 ㉡ 존립 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등으로 법인의 본래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해산하더라도 법인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 청산을 거친다. 청산 기간 동안 법인은 본래의 사업 활동은 할 수 없고, 채무를 ㉢ 변제하거나 자산 매각 등 재산 정리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유지한다. 또한 청산 기간 동안에는 임명된 청산인이 법인의 대내외적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법인의 소멸을 마무리하게 된다. 청산이 종료되면 법인격은 소멸하며, 그 사실을 제삼자에게 공시하기 위해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이 어떻게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학설이 논의되어 왔다.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권리 능력의 범위를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법인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사를 가진 실체로 보아, 정관에 명시된 것 외에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도 이어진다. 여기서 불법 행위 능력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을 부정하며,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 행위로 설명한다. 즉 행위의 효과만 법인에 귀속될 뿐 행위 자체는 대표자의 것이라고 본다. 불법 행위 능력 또한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 능력은 부정된다.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법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며,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다. 한편 실정법 차원에서, 민법 제35조는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때 대표자 역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구성 실체에 따라 ㉣ 사단 법인과 ㉤ 재단 법인으로 나뉜다. 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사원이라 불리는 구성원이 존재하며 사원의 교체는 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단 법인은 최고 의결 기관인 사원 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을 집행한다. 또한 사원들의 합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재단 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출연된 재산이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므로 설립자의 사망은 법인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단 법인은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설립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사무를 ㉥ 주관한다. 또한 설립자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영리 법인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영리 법인이다. 반면 비영리 법인은 주로 학술, 종교, 자선 등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법인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 재단 법인은 언제나 비영리 법인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법인은 권리 능력을 보는 관점이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정관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설립 등기: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1. <보기 1>은 윗글과 관련되는 예시이다. <보기 2>의 ①, ②, ③, ④, ⑤에 들어갈 말을 윗글과 <보기 1>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1>

(가) 법인 A는 물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정관에는 창고 임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A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물품 제조·판매 사업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다.

(나) 법인 B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대표자는 거래처인 ‘갑’과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법인 C는 건설 회사이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대표자는 공사 현장 관리 중 과실로 인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인 ‘을’이 다쳤고 ‘을’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기 2>

- (가)에서 A가 하려는 사업을 A의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하는 데 법인 실재설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법인 (①) 설이다.
- 법인 실재설이 (나)에서 대표자가 ‘갑’과 체결한 계약을 B의 행위로 보는 것은, 법인 의제설과 달리 법인 자체의 (②)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법인 실재설이 (다)에서 대표자의 위법한 행위로 ‘을’이 다친 데 대한 배상 책임이 C에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인 의제설이 대표자에게만 인정하는 (③) 능력을 법인 자체에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 법인 실재설에 따르면, (가)에서 A가 하려는 (④)은/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A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A의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
- 민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에서 ‘을’에 대한 배상 책임은 C가 지며, C의 (⑤) 역시 그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① (2.2점) ② (2.2점) ③ (2.2점) ④ (1.7점) ⑤ (1.7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표준 발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음운 변동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있는데, 이들 규칙의 적용과 연음 현상의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다. 어떤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 조건이 되고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앞말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오는 경우에 뒤의 말이 문법 형태소이면 연음부터 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반면, 실질 형태소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에 연음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무릎+을’은 [무르플]이 되고 ‘옆+얼굴’은 [여벌굴]이 된다. 자음군 단순화와 연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2. <보기>의 ①, ②, ③, ④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때, 앞말의 겹받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단, 윗글의 용어에 따라 겹받침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구별한다.)

<보기>

- ① 녀두리[넉뚜리] ② 없어[업: 씨]
③ 값을[갑쓸] ④ 진흙이[진흘기]

① (2.6점) ② (2.4점) ③ (2.4점) ④ (2.6점)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말 조선 초,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설계하던 정도전은 유교 중심의 도덕 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는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들과는 달리 새 왕조 시대로의 변혁을 위해서는 오랜 관습으로 이어진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심기리편(心氣理篇)』,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의 저술을 통해 현실적 측면으로 나타난 불교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자신의 이기론(理氣論)을 바탕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고정적인 실체가 없고, 원인인 ‘인(因)’과 조건인 ‘연(緣)’이 상호 관계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는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과 변하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법무아(諸法無我)’는 이러한 관점을 집약한 말이다. 이에 따라 불교에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감각, 표상, 의지, 판단 등의 정신 활동도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공(空)’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정도전은 이러한 사상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주체가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면, 선악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천리(天理)에 따라 정비된 사회 ㉠질서도 허망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유교가 ‘이(理)’와 ‘기(氣)’를 중심으로 한 직관적으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는 만물에 깃들여 있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이며, ‘기’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요소라고 보았다. 즉 ‘이’는 절대적이며 선한 것이지만 ‘기’의 작용에 의해 선과 악, 질서와 혼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기]에 맞게 운영되지만, 그 근본은 불변의 도덕적 원리[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제도의 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기’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실천의 원동력인 ‘심(心)’ 역시 ‘기’와 마찬가지로 ‘이’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확고한 도덕 원칙과 연결되며, 충효와 같은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심’은 변화하는 ‘기’의 속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정도전은 유교 윤리의 보편성과 유교적 국가 제도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정도전의 견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공’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지적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존재에 대한 부정인 ‘허(虛)’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통찰이다. ‘공’에 대한 인식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하는 ‘작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인간도 부모·사회·자연 등 수많은 인연 속에서 생겨났으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된 허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에 대한 인식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상을 통섭할 수 있는 바탕이자 집착과 고통을 줄이고 연민과 자비로 타자를 이해하게 만드는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생 출신인 승려 기화는 『현정론』에서, 집착에서 벗어나 공동체 속에서 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자아를 해체함으로써 개인 중심의 욕망을 비우고, 중생 전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자비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의 오계(五戒)*와 유교의 오상(五常)*이 대응함을 언급하면서 올바른 사회를 위해 실천해야 할 윤리는 유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기화는 유교와 불교의 지향점과 실천 윤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유불 일치론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불교가 더 큰 진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도전의 불교 비판은 단순한 교리 논쟁을 넘어, 새로운 국가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모색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도전은 고려가 타락한 원인이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데서 비롯된 명확한 실천 윤리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고, 유교 이념에 입각한 이상 사회를 설계했다. 그에 따라 배타적 관점에서 강한 어조로 불교를 비판하면서 송유 역불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업(業)*에 따라 인과응보와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적 실천 윤리는 당대 백성들의 생활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왕실에서도 유지되었다. 이것은 당대 불교와 유교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오계 : 속세에 있는 신자(信者)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행(淫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이다.

＊오상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다섯 가지 덕.

＊업 : 미래에 선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행.

[문제 3-1] <보기>는 정도전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 ④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개념	정도전의 주장
‘이(理)’	만물에 깃들어 있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①)
‘기(氣)’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②)
‘이’와 ‘기’의 관계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운영되지만 그 근본은 불변의 도덕적 원리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기’에는 (③)이/가 있음
불교의 ‘심 (心)’	변화하는 ‘기’의 속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④)와/과 연결됨

① (1.6점) ② (1.6점) ③ (1.4점) ④ (1.4점)

[문제 3-2] 윗글에서 승려 기화가 진정한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본 것을 찾아 두 글자로 쓰시오.

⑤ (2점)

[문제 3-3] 윗글에서 ㉠과 반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찾아 두 글자로 쓰시오.

⑥ (2점)

국어 영역

[문제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뻘 大王이 重흔 病을 어더 겨시거늘 太子 | 臣下이그에 가 닐오되 아바닐 病이 기프시니 엇데호료 臣下 | 닐오되 도흔 藥을 몬 어들씩 命이 아니 오라시리이다 太子 | 듣고 안둡겨 짜해 그우러 디엣터라 여섯 大臣 이 議論호되 太子를 더러 브리디 아니호면 우리 乃終내 便安티 몬호리라 혼 大臣이 닐오되 내 方便으로 더로 리라 호고 太子씩 가 닐오되 내 요스시에 여썬 小國에 가 藥을 얻다가 몬호이다

[현대어 풀이]

그때 대왕이 중한 병을 얻어 계시거늘 태자가 신하에게 가 이르되, “아버님의 병이 깊으시니 어찌하리오?” 신하가 이르되, “좋은 약을 못 얻으므로 명이 오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태자가 듣고, 애타하여 땅에 굴러 넘어졌다. 여섯 대신이 의논하되, “태자를 덜어(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침내 편안치 못하리라.” 한 대신이 이르되, “내가 방편(뾰)으로 덜리라(제거하리라).” 하고 태자에게 가 이르되, “내가 요사이에 예순 소국에 가 약을 얻다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나)

命終호야 兜率天에 가아 兜率天子 | 도외야 世尊 뵈습고져 너겨 즉자히 느려와 世尊씩 뵈스뵈 머리 조습고 혼녀고 안즈니 그저고 兜率天子 | 모매 放光호야 祇樹給孤獨園을 다 비취오 偈 지서 讚嘆호습고 즉자히 도로 수므니라

[현대어 풀이]

(수달이) 죽어, 도솔천에 가 도솔천자가 되어 세존 뵈옵고자 여겨 곧바로 내려와 세존께 뵈어 머리 조아리고 한켠에 앉으니, 그때에 도솔천자가 몸에 빛 내어 기수급고독원을 다 비추고 게 지어 (세존을) 찬탄하고 곧바로 도로 숨으니라.

4. <보기 1>의 ①, ②, ③, ④, ⑤에 들어갈 말을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1>

위 자료를 통해 중세 국어 높임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가)에서 ‘命이 아니 오라시리이다’의 ‘-시-’는 (①)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그리고 같은 말의 ‘-이-’를 통해서는 (②)인 ‘太子(태자)’를 높이고 있다. 또 (가)에서 ‘太子씩 가 닐오되’ 뒤에 이어지는 대신의 말 ‘藥을 얻다가 몬호이다’의 ‘-이-’를 통해서도 (③)인 ‘太子’를 높이고 있다.

(나)에서는 ‘世尊 뵈습고져’의 ‘-습-’을 통해 (④)인 ‘世尊(세존)’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世尊씩 뵈스뵈’의 ‘-스뵈-’은 ‘-습-’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형태가 바뀐 것으로, 이를 통해서도 (⑤)인 ‘世尊’을 높이고 있다.

<보기 2>

주체, 상대, 객체

① (1.8점) ② (1.8점) ③ (2.2점) ④ (2.2점) ⑤ (2점)

[문제 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5.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감상이다. ①, ②, ③의 감상의 근거가 되는 표현을 윗글의 ㉠~㉤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이 작품은 더러움과 허위가 가득 찬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눈과 같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 주는 시로 알려져 있어. 화자는 ‘눈’이라는 자연물의 감각적 속성을 강조하며, 외부의 억압과 그로 인한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화자는 ①시간이 흘러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눈의 생명력을 통해 눈과 화자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②눈을 화자의 기침을 지켜보는 존재로 삼아 눈이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고 있어. 그리고 ③순수한 눈과 대립되는, 가슴속에 오래 고여 있던 불순한 것을 몸 밖으로 뱉어 내려는 모습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① (3.2점) ② (3.4점) ③ (3.4점)

[문제 6] 다음은 교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NS 시대,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주제로 연설하게 된 ○○○입니다. SNS는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고, 관심사나 생각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한 매체입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잠시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SNS에 더 멋진 게시물을 올리려 노력한 적은 없으신가요?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제시된 게시물은 며칠 전 제가 올린 건데요, 이 게시물은 사실 많은 반응을 기대하며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요’가 평소의 절반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 게시물에 반응하지 않은 친구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면서, 나는 열심히 팔로우해 줬는데 왜 내 게시물에는 반응하지 않는가에 대해 서운해했고, ‘내가 친구들에게 뭔가 잘못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많은 분이 제 경험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2025년 미국 퓨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48%가 SNS가 또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11%보다 네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SNS를 사용하면서 피로감이나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31%의 청소년은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위해 더 많은 콘텐츠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지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SN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보여 주거나 자랑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리고, SNS상에서 친구들의 반응에 집착하며 내 게시물에 반응해 줄 사람들만 늘리는 것을 과연 누군가와 진정 연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진정한 연결이란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NS에서 우리는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것에 집중하고, ‘좋아요’나 댓글 수로 관계의 깊이를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SNS 활용은 진정한 연결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SNS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150여 명의 SNS 친구 중 실제 정기적으로 가깝게 소통하는 친구는 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SNS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유용함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SNS를 남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진 대신 솔직한 일상을, ‘좋아요’ 대신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SNS를 사용할 때 느끼는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 반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각과 감정을 진짜 친구와 나누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와의 공유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연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숫자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이번 연설을 통해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 ③, ④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연설 내용 요약]

연설자는 ‘SNS 시대,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주제로, SNS가 멀리 있는 친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관심사나 생각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한 매체임을 먼저 언급한다. 이어 많은 반응을 기대하며 올린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평소의 절반밖에 달리지 않았을 때 (①)을/를 느꼈던 경험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의 응답을 조사한 보고서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SNS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이란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SNS에서 우리는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 주려 하고 ‘좋아요’나 댓글 수로 관계의 깊이를 파악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SNS 활용은 진정한 연결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SNS를 사용하는 (②)을/를 점검하여 SNS를 남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 SNS를 사용할 때 느끼는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돌아볼 것, 그 생각과 감정을 진짜 친구와 나눌 것을 제시한다. 끝으로 진정한 연결은 숫자로 측정될 수 없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욱 소중하다고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한다.

[연설 전략]

연설자는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연설에서 활용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손을 들어 보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청중의 주의를 (③)시킨 뒤, 청중에게 (④)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또 ㉠, ㉡, ㉢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의 SNS 게시물, 보고서의 통계 수치를 시각화한 그래프, 진정한 연결의 조건과 SNS상 연결의 특징을 설명한 자료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청중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과 4문단, 5문단의 서두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와 같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① (2.8점) ② (2.2점) ③ (3점) ④ (2점)

[문제 7]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 고등학교 지역 사회 탐구 동아리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는 □□시에 속한 지역 중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구의 치매 안심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구 치매 안심 센터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안심 센터의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에 위치한 ○○구의 치매 안심 센터는 현재 분소 없이 본소만 운영되고 있어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센터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매 안심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센터 방문이 어려운 치매 환자의 경우, 각 가정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복약 지도와 운동 및 재활 치료를 진행한다면 환자별로 일대일 맞춤형 돌봄이 가능해 치매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치매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 치매 안심 센터는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및 노인 세대 가정을 관리하는 치매 예방 활동가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치매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구도 치매 예방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예방 교육과 인지 건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면 지역 사회의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 교실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간대를 다양하게 하고 그 횟수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족 교실 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느라 종일 환자 곁에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 센터를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우울감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환자 가족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건의드린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실시가 선행된다면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어 가족 교실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수용할 경우, 구청의 행정 운영 면에서 예산상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지역 주민이 건강을 증진하고 ○○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달라질 ○○구 치매 안심 센터는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핵심 기지로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정서적인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7-1] <보기 1>은 윗글을 쓰기 위한 학생의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 1>의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두 개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보기 1>

- 첫머리에서 건의의 주체가 ㉠♡♡ 고등학교 지역 사회 탐구 동아리임을 밝히고, ○○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치매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대응에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건의의 배경을 제시한다.
- 첫째 건의 사항으로 ㉡치매 안심 센터 분소의 설립을 요청하고,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센터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 둘째 건의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도 ○○구 치매 안심 센터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구 치매 안심 센터가 치매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여 큰 효과를 거둔 사례를 제시한다.
- 셋째 건의 사항에서는 가족 교실 서비스의 이용 현황이 저조한 이유로,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느라 종일 환자 곁에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 건의를 수용할 경우 ㉤구청의 행정 운영 면에서 예산상의 부담이 우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기대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 건의를 수용해 주기를 요청한다.

기호	수정한 내용
①-1 (1.5점)	①-2 (2점)
②-1 (1.5점)	②-2 (2점)

[문제 7-2] <보기 2>는 학생이 윗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③, ④, ⑤에 들어갈 적절한 자료의 번호를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2>

[자료 1] ○○구의 노령화 지수 및 치매 유병률

- 노령화 지수*(2020년 → 2021년 → 2022년): ○○구 194 → 218 → 246, □□시 149 → 163 → 180
- 치매 유병률(2020년 → 2021년 → 2022년): ○○구 6.84% → 6.93% → 7.11%, □□시 6.65% → 6.76% → 6.93%

* 노령화 지수: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비율.

○○구는 □□시 25개 구 중 2번째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음. 매년 독거노인 세대 및 치매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 및 돌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자료 2] ○○구 지역별 치매 안심 센터의 이용률

- ○○구 지도: ○○구 치매 안심 센터(△△동)를 중심으로 반경 1km의 원이 표시되어 있고, ▽▽동은 이 원 밖에 있음.
- 치매 안심 센터 이용률: △△동 32.73%, ♡♡동 26.43%, ☆☆동 25.23%, ▽▽동 12.31%

○○구 치매 안심 센터는 △△동에 위치하며 노인의 행동반경(0.5~1km)을 고려했을 때, 치매 안심 센터에서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치매 안심 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

[자료 활용 계획]

자료	보완 내용
③	○○구의 노령화 지수가 해마다 높아지면서 □□시보다 높고, ○○구가 □□시 25개 구 중 2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바탕으로, 1문단에서 건의의 배경으로 든 ‘○○구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④	치매 안심 센터에서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바탕으로, 2문단에서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센터 이용률이 낮은 실정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⑤	매년 독거노인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돌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3문단에서 독거노인 및 노인 세대 가정을 관리하는 치매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③ (1점) ④ (1점) ⑤ (1점)

[문제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빅 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와 위변조가 쉽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흔히 쓰이는 방법은 원본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문서나 이미지의 배경에 넣는 것이다. 그런데 워터마크는 문서나 이미지의 미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정보 인식에 방해가 되며 제거의 가능성도 있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상에 비밀 데이터를 삽입하여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기술과 달리,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이용하면 워터마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스테가노그래피의 적용 과정은 보통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와 ‘커버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보를 은닉하는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하며, 정보를 숨긴 결과물은 ‘스테고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암호화 단계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암호화 과정이 생략된 스테가노그래피는 구현이 쉽지만 보안에 취약하다. 반면 암호화 과정이 있는 스테가노그래피의 경우 보안성은 높지만, 암호화로 비밀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은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임베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개발되었는데, 고전적 방식의 대표적인 것이 LSB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미지의 픽셀값을 구성하는 최하위 비트를 바꿔 정보를 숨기는 것이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 하나의 픽셀은 적색, 녹색, 청색이라는 세 개 채널의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각 채널은 빛의 강도에 따라 0에서 255 사이의 수치를 8자리 이진수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적색 채널의 픽셀값이 252이면 1111110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1을 임베딩할 경우 11111101이 된다. LSB 방식은 n-LSB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데, 이는 임베딩 정보의 양에 따라 하위 n개의 비트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최하위 비트 정도의 차이는 육안으로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왜곡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임베딩 용량을 늘리면 스테가노그래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중략)

WOW 방식은 데이터의 삽입 용량보다 은닉성에 초점을 둔 임베딩 알고리즘이다. LSB, PVD 방식은 이미지의 각 픽셀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픽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임베딩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왜곡으로 인한 탐지 가능성이 높다. 반면 WOW 방식은 주변 픽셀들을 고려하여 커버 오브젝트의 데이터와 스테고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유사한 분포를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밀 데이터를 임베딩할 때,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여 각 픽셀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계산 결과에 따라 임베딩할 때 가장 변화가 적은 픽셀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삽입하면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합성곱 신경망(CNN)을 활용한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에서는 스테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인코더와 정보를 복원하는 디코더를 공동으로 학습시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픽셀 변화를 자동으로 설계한다. 여기에 생성형 적대적 신경망(GAN)을 사용하면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며 학습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스테가노그래피는 단순한 숨기기 기술을 넘어서, 인공지능과 결합하며 보안성과 은닉성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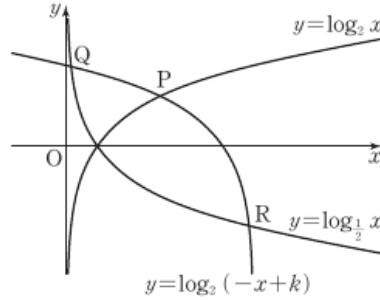
8.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두 개를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보기>

- 스테가노그래피는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기술과 달리,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이 핵심이다.
- 암호화 과정이 생략된 스테가노그래피는 구현이 쉽지만 ㉡보안에 취약하다.
- 임베딩을 통해 정보를 숨긴 결과물은 ㉢커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 LSB 방식은 이미지의 픽셀값을 구성하는 ㉣최하위 비트를 바꿔 정보를 숨긴다.
- WOW 방식은 데이터의 ㉤삽입 용량에 초점을 둔 임베딩 알고리즘으로,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여 각 픽셀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기호	수정한 내용
①-1 (1.8점)	①-2 (3.2점)
②-1 (1.8점)	②-2 (3.2점)

9. 그림과 같이 $k > 2$ 인 상수 k 에 대하여 곡선 $y = \log_2(-x + k)$ 가 곡선 $y = \log_2 x$ 와 만나는 점을 P , 곡선 $y = \log_2(-x + k)$ 가 곡선 $y = \log_{\frac{1}{2}} x$ 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Q , 제4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R 이라 하고, 세 점 P, Q, R 의 x 좌표를 각각 p, q, r 이라 하자. $p - q = 2\sqrt{2}$ 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p 를 k 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 (2) $r - q$ 의 값을 구하시오.
- (3) $k + (r - q)^2$ 의 값을 구하시오.

(1) _____ (3.5점) (2) _____ (3.5점) (3) _____ (3점)

1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두 함수 $|f(x)|, |(x - 1)f(x)|$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실수 x 의 개수는 각각 1이다.
- (나) 함수 $f(x)$ 는 $x = 3$ 에서 극소이다.
- (다) 방정식 $f(x) = 0$ 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며, 그중 하나는 1이다.

- (1) 함수 $|f(x)|$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실수 x 를 a 라 할 때, 조건 (가)와 (다)를 이용하여 $f(x)$ 를 a 에 대한 식으로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 (2) a 의 값을 구하시오.
- (3) $f(5)$ 의 값을 구하시오.

(1) 풀이 과정 서술 (4.7점) (2) _____ (2.3점) (3) _____ (3점)

2027학년도

막차수학 상명대 인문 오프라인 모의고사 해설

빠른 정답 · 연계 설명 · 문항정보 카드(출제 의도 · 출제 근거 · 문항 해설 · 채점 기준)

출제 · 해설: 막차수학 원장 한정호 · 상명대학교 논술고사 풀을 본뜬 모의고사입니다

답안지는 문항별 통 박스(1.~10.)이며, 학생이 세부분항 번호(①, ② / (1), (2))를 직접 쓰고 답을 적습니다.
채점은 학생이 쓴 세부분항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빠른 정답]

번호	국어	번호	수학 (최종 답)
1	① 의제 · ② 행위 · ③ 불법 행위 · ④ 창고 임대 사업 · ⑤ 대표자	9	(1) $\frac{k}{2}$ · (2) $4\sqrt{2}$ · (3) 38
2	① 자음군 단순화 · ② 연음 · ③ 연음 · ④ 연음	10	(1) $f(x) = (x - a)(x - 1)^2$ (단, $a \neq 1$) · (2) $a = 4$ · (3) 16
3	① 원리 · ② 요소 · ③ 위계 · ④ 허무주의 · ⑤ 자각 · ⑥ 혼란		
4	① 주체 · ② 상대 · ③ 상대 · ④ 객체 · ⑤ 객체		
5	① ㉔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 ② ㉔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③ ㉔ 밤 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6	① 소외감 · ② 목적 · ③ 집중 · ④ 질문		
7	①-1 ㉔ · ①-2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의) 운영 · ②-1 ㉔ · ②-2 최근 신문 보도 · ③ 자료 1 · ④ 자료 2 · ⑤ 자료 1		
8	①-1 ㉔ · ①-2 스테고 오브젝트 · ②-1 ㉔ · ②-2 은닉성		

[연계 설명]

문항마다 상명대 2026학년도 같은 번호(인문 A형 · 자연 A형)의 출처 교재·쪽과 이번 모의의 올해(2027학년도) EBS 출처를 1:1로 적었습니다. 작년 같은 번호와 같은 분야·유형의 올해 EBS 문항을 골랐고, 지문과 문항 조건은 EBS 원문을 따르며, 물음은 상명대 기출의 물음 골·칸 수·배점에 맞추었습니다.

번호	작년 같은 자리 (2026 상명대)	이번 모의 (올해 EBS)
1	작년(2026 인문 A형 1번)은 수능특강 독서 151쪽(사회·법, 개념→사례)	2027 수능완성 유형편 01강 독서 p.19 [26051-0007~0012]
2	작년(2026 인문 A형 2번)은 교과서 + 수능완성 88쪽(언매 음운 변동)	2027 수능완성 국어 실전 모의고사 3회 [35~36]
3	작년(2026 인문 A형 3번)은 수능완성 136쪽(인문·사상)	2027 수능완성 독서 01강 p.8 [26051-0001~0006]
4	작년(2026 인문 A형 4번)은 교과서만(동아·미래엔 국어, 중세 높임법)	2027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09강 p.84~85 [26004-0072~0073]
5	작년(2026 인문 A형 5번)은 수능완성 149쪽(실전 1회 현대시)	2027 수능완성 실전 3회 p.200 [26051-0178~0181] 김수영, 「눈」
6	작년(2026 인문 A형 6번)은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73쪽(연설)	2027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 [35~38](화작판) p.257 [26051-0275~0278]
7	작년(2026 인문 A형 7번)은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110쪽(건강 작문, 걷기 운동 참고)	2027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15강(통합) p.200 [26003-0181~0183]
8	작년(2026 인문 A형 8번)은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18쪽(과학·기술)	2027 수능완성 실전 4회 p.217 [26051-0208~0212]
9	작년(2026 인문 A형 9번)은 교과서 + 수능완성 11쪽(로그함수)	2027 EBS 수능완성 수학 I·수학II·확률과 통계 p.112 (2026년 발행) 26054-1020
10	작년(2026 인문 A형 10번)은 교과서 + 수능완성 49쪽(구간함수·절댓값의 미분 가능성)	2027 EBS 수능완성 수학 I·수학II·확률과 통계 p.54 (2026년 발행) 26054-0121 (조건 (다)를 더해 재구성)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1
문항 코드	SMKM-1301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문화(법) 분야의 글 읽기 — 법인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
예상 소요 시간	7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사회·문화 분야의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재설의 차이,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의 개념, 민법 제35조의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법인의 구체적인 사례에 각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유형편 01강 독서 p.19 [26051-0007~0012] 법인의 권리 능력과 유형 (지문 6문단 원문 그대로)
교과서 외	같은 책 p.22 [26051-0011] 05번 <보기> (가)·(나)·(다) 법인 A·B·C 사례 (원문 그대로, <보기 1>로 씀)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1번)은 수능특강 독서 151쪽(사회·법, 개념→사례) → 이번 1번은 수능완성 19쪽(사회·법, 개념→사례). 작년처럼 법 개념을 설명한 지문과 그 개념이 적용되는 예시(<보기 1>)를 주고, <보기 2>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윗글과 <보기 1>에서 찾아 쓰게 하였다.

①~③은 지문의 개념어(작년의 장애·중지·불능처럼 ‘~설’, ‘~ 능력’ 앞에 들어갈 말), ④·⑤는 <보기 1> 속 대상(작년의 자전거·테이블)이다. 지문(6문단)과 <보기 1>(EBS 05번 [26051-0011] <보기>)은 EBS 원문 그대로이다.

①(의제): 3문단에서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권리 능력의 범위를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였고,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 정관에 명시된 것 외에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보기 1>의 (가)에서 A가 하려는 창고 임대 사업은 ‘정관에는 …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권리 능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쪽은 법인 의제설이므로, 이 사업을 A의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하는 데 법인 실재설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법인 의제설이다(EBS 05번 선지 ①은 적절한 이해, 해설 ‘법인 의제설은 권리 능력의 범위를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해석하지만, 법인 실재설은 정관에 명시된 것 외에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의 창고 임대 사업에 대해 법인 의제설이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빈칸 문장에서 ‘법인 실재설보다’라고 비교 대상을 밝혔으므로 ‘실재’는 답이 될 수 없다.

②(행위): 1문단에서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을 부정하며,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 행위로 설명한다. 즉 행위의 효과만 법인에 귀속될 뿐 행위 자체는 대표자의 것이라고 본다.’,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법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며’라고 하였다. <보기 1>의 (나)에서 B의 대표자는 ‘거래처인 ‘갑’과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은 법률 행위이므로, 법인 실재설이 이 계약 체결을 대표자의 행위가 아니라 B의 행위로 보는 것은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EBS 05번 선지 ②는 적절한 이해, 해설 ‘법인 의제설은 행위의 효과만 법인에 귀속될 뿐,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 행위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 법인 실재설은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인 실재설에 따르면, (나)에서의 계약 체결은 B의 행위로 본다.’). ‘권리’ 능력은 3문단에서 보듯 법인 의제설도 (정관에 명시된 범위에서) 법인에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인 의제설과 달리’라는 조건에 맞지 않고, ‘불법 행위’ 능력은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의 책임에 관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인 (나)와 맞지 않는다.

③(불법 행위): 4문단에서 ‘불법 행위 능력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불법 행위 능력 또한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 능력은 부정된다. 반면 법인 실재설에서는 …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보기 1>의 (다)에서 C의 대표자는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인 ‘을’이 다쳤다’.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불법 행위 능력이므로, 법인 실재설이 그 배상 책임이 C에 있다고 보는 것은 법인 의제설이 대표자에게만 인정하는 불법 행위 능력을 법인 자체에도 인정하는 것이다(EBS 05번 선지 ③은 적절한 이해, 해설 ‘법인 실재설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 직접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 ‘을’에 대한 배상 책임이 C에 있다고 본다.’ / 선지 ⑤ 해설 ‘법인 의제설은 불법 행위 능력이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 능력은 부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 (다)에서 ‘을’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 행위는 대표자의 행위로 보며, C 자체의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 / EBS 01번 [26051-0007] 선지 ④ 해설 ‘불법 행위 능력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는 능력이 아니고, 지문에서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이라고 한 것도 불법 행위 능력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④(창고 임대 사업): 3문단에서 ‘법인 실재설에서는 … 정관에 명시된 것 외에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보기 1>의 (가)에서 ‘법인 A는 물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정관에는 창고 임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A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물품 제조·판매 사업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라고 하였다. A가 하려는 일 가운데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창고 임대 사업이므로, 법인 실재설에 따르면 이 사업이 설립 목적(물품 제조·판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면 A의 권리 능력의 범위에 포함된다(EBS 05번 선지 ① 해설과 같은 근거). ‘물품 제조·판매’는 A의 설립 목적 자체이고, ‘창고’는 임대하는 대상일 뿐 A가 하려는 사업(행위)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⑤(대표자): 4문단에서 ‘민법 제35조는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며, 이때 대표자 역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보기 1>의 (다)에서 ‘이 회사 대표자는 공사 현장 관리 중 과실로 인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행인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35조에 따르면 C가 배상 책임을 지고 C의 대표자 역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EBS 05번의 정답 ④ ‘민법 제35조는 (다)에서 ‘을’에 대한 배상 책임이 대표자에게 있고 C에는 없다고 본다.’가 적절하지 않은 까닭으로 해설이 든 내용, ‘민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에서 ‘을’에 대해 C 회사의 대표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C도 배상 책임을 진다.’). ‘사원’이나 ‘이사회’는 5문단의 사단 법인·재단 법인 설명에 나오는 말로 (다)의 손해와 관계가 없고, ‘을’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2
문항 코드	SMKM-1302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국어의 음운 변동(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연음의 순서)
예상 소요 시간	6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뒤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시작하는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인지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와 연음의 적용 순서가 달라짐을 이해하고, 이를 접합침을 가진 단어의 표준 발음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연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언어와 매체)』 실전 모의고사 3회 [35~36](연매판) 제시문 1문단 (원문 · 일부 문단)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2번)은 교과서 + 수능완성 88쪽(연매 음운 변동) → 이번 2년도 수능완성 실전 3회 [35~36](연매 음운 변동)

윗글은 수능완성 실전 3회 [35~36] 제시문 가운데 1문단(원 문항 35번이 '[A]를 바탕으로' 묻는 부분)만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일부 문단: 비표준 발음과 어형의 복수 저장을 다룬 2~5문단은 뺐). <보기>의 단어와 발음은 원 문항 35번 선지 ①~④에 나온 그대로이다. 1문단의 핵심은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이다. 둘째 문장: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앞말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된다.' 셋째 문장: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오는 경우에 뒤의 말이 문법 형태소이면 연음부터 되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못하는 반면, 실질 형태소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다음에 연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음군 단순화와 연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에 따라 두 문장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리에 '자음군 단순화'를 넣어 접합침에 적용한다.

①: '넋두리'는 접합침 'ㄴ' 뒤에 자음 'ㄷ'으로 시작하는 말이 온다. 1문단 둘째 문장에 따라 앞말에는 자음군 단순화만 적용되어 [넉두리]가 되고, 그다음 'ㄱ' 때문에 'ㄷ'이 된소리가 되어 [넉뚜리]가 된다. 뒤에 자음이 오므로 연음이 일어날 조건 자체가 없다. 따라서 답은 '자음군 단순화'이다(EBS 정답과 해설 3회 35번 ①: '뒤에 자음이 오면 연음이 될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음군 단순화만 적용되어 [넉두리]가 되고'). 된소리되기(경음화)는 윗글에 없는 말이고 자음군 단순화 뒤에 일어나므로 답이 아니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홀받침에 대한 규칙이고 'ㄴ'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이므로 오답이다.

②: '없어'는 '없-'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문법 형태소)가 온다. 1문단 셋째 문장에 따라 연음이 먼저 되어 [업: 서]가 되고, 그다음 'ㅂ' 때문에 'ㅅ'이 된소리가 되어 [업: 써]가 된다. 따라서 답은 '연음'이다(EBS 정답과 해설 3회 35번 정답 ②: '연음이 먼저 적용되어 [업: 서]가 된다'). 연음되면 앞 음절 끝에 'ㅂ' 하나만 남으므로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③: '값을'은 '값'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문법 형태소)이 온다. 1문단 셋째 문장에 따라 연음이 먼저 되어 [갑술]이 되고, 그다음 'ㅂ' 때문에 'ㅅ'이 된소리가 되어 [갑쓸]이 된다. 따라서 답은 '연음'이다. '연음 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면 틀린다. 연음이 되면 앞 음절 끝이 'ㅂ' 하나여서 자음군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EBS 정답과 해설 3회 35번 ③: '그 이후 자음군 단순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진흙이'는 '진흙'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문법 형태소)가 온다. 1문단 셋째 문장에 따라 연음이 먼저 되어 'ㄹ'의 'ㄱ'이 뒤 음절 첫소리로 넘어가 [진힐기]가 된다. 따라서 답은 '연음'이다.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적용하면 [진히기]나 [진히리]라는 비표준 발음이 나오므로 '자음군 단순화'는 오답이다(EBS 정답과 해설 3회 35번 ④: '연음을 먼저 적용해야 [진힐기]라는 올바른 발음을 도출할 수 있다').

정리: 접합침 뒤에 자음이 오면 자음군 단순화만(①),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먼저(②·③·④) 일어난다. ②·③·④는 답이 같다(상명대 2026 인문 A형 2번에서도 ②·③ 칸의 답이 '탈락'으로 같았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3
문항 코드	SMKM-1303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인문(사상) — 정도전의 불교 비판
예상 소요 시간	4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인문 분야의 글의 주제와 내용(정도전의 불교 비판과 이에 대한 불교계의 반박)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다. 정도전이 이기론을 바탕으로 펼친 주장과 기화가 내세운 실천의 출발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유형편 01강 독서 p.8 [26051-0001~0006] 정도전의 불교 비판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3번)은 수능완성 136쪽(인문·사상) → 이번 3번도 수능완성 8쪽(인문·사상).

①: 3문단 «그는 ‘이’는 만물에 깃들어 있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이며»에서 ‘이’는 ‘원리’이다. 같은 문단의 ‘요소’는 ‘기’를 설명하는 말이므로 ①에 들어가지 않는다(EBS 26051-0002 ③ «‘이(理)’가 만물에 보편적으로 깃들어 있다»는 적절한 선지).

②: 3문단 «‘기’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요소라고 보았다»에서 ‘기’는 ‘요소’이다. ‘원리’는 ‘이’에 대한 말이므로 ②에는 맞지 않는다.

③: 3문단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기]에 맞게 운영되지만, 그 근본은 불변의 도덕적 원리[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는 … ‘이’와 ‘기’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에서 ‘위계’가 답이다(EBS 26051-0002 ② «법과 제도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운영되더라도 도덕적 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절한 선지, 해설 «‘이’와 ‘기’에 위계가 있다»).

④: 3문단 «이와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심’은 변화하는 ‘기’의 속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연결된다고 보았다»에서 ‘허무주의’가 답이다(EBS 26051-0002 ① «불교에서 말하는 ‘심(心)’은 확고한 도덕 원칙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주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적절한 선지). ‘허상’은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말로, 정도전이 ‘심’과 연결된다고 한 말이 아니다.

⑤: 4문단 «유생 출신인 승려 기화는 『현정론』에서, 집착에서 벗어나 공동체 속에서 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에서 기화가 출발점으로 본 것은 ‘자각’이다(EBS 26051-0005 ② «윤리적 자각»). 같은 문단의 ‘바탕’·‘기반’은 기화가 아니라 불교계가 ‘공’에 대한 인식을 두고 한 말이고 ‘출발점’이라 하지 않았으며, ‘집착’은 벗어나야 할 대상이고, ‘조화’는 자각이 이루려는 목표(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각)일 뿐 기화가 출발점이라고 한 것은 ‘자각’이므로 둘 다 답이 아니다.

⑥: ① ‘질서’는 2문단 «천리(天理)에 따라 정비된 사회 질서»의 질서이다. 3문단 «‘기’의 작용에 의해 선과 악, 질서와 혼란이 만들어진다»에서 ‘질서’와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말로 쓰인 두 글자 단어는 ‘혼란’이다(EBS 26051-0002 ④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져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지만»은 적절한 선지). 5문단의 ‘타락’은 고려가 타락한 원인을 말한 것으로, 윗글에서 ‘질서’와 반대되는 말로 짝지어 쓰이지 않았다.

참고: 윗글은 정도전의 비판과 기화의 반박을 당대 상황과 연결하여 고찰한 글이다(EBS 26051-0001 정답 ⑤). 정도전과 기화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충효 윤리의 실천이다(EBS 26051-0003 정답 ④).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4
문항 코드	SMKM-1304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중세 국어 높임법, 주체/상대/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의한 높임
예상 소요 시간	7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중세 국어 문헌 자료에 쓰인 높임 요소(선어말 어미 ‘-시-’, ‘-이-’, ‘-습-’[‘-스-’+‘-’])가 주체, 상대, 객체 가운데 어느 대상을 높이는지 판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어 높임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언매02-07]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 [12언매03-05]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를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언어와 매체)』 09강 국어사 p.85 [26004-0073] <보기>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어 풀이] — (가)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언어와 매체)』 09강 국어사 p.84 [26004-0072] <보기>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어 풀이] — (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언어와 매체)』 1부 p.32 높임 표현의 갈래, p.36 ‘3) 객체 높임 표현’ (개념)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4번)은 교과서만(동아·미래엔 국어, 중세 높임법) → 이번 4번은 같은 유형의 올해 EBS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85쪽(중세 높임) 자료

(가)는 2027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09강 85쪽 [26004-0073]의 <보기> 자료, (나)는 84쪽 [26004-0072]의 <보기> 자료로, [현대어 풀이]와 함께 EBS 원문을 옮겼다. 높임의 갈래는 같은 책 1부 32쪽(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과 36쪽 ‘3) 객체 높임 표현’을 따랐다.

①: (가)의 ‘壽命이 아니 오라시리이다’(명이 오래지 아니할 것임이다)에서 ‘-시-’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EBS 26004-0073 선지 ③은 이 말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고 하였고, 정답과 해설(21쪽 05번)은 이 가운데 ‘-이-’ 부분만 틀렸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는 주체 높임이고 ①은 ‘주체’이다.

②: 같은 말의 ‘-이-’에 대해 EBS 정답과 해설(21쪽 05번)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청자인 ‘太子(태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하였다. [현대어 풀이]에서 이 말은 신하가 태자의 물음(‘아버님의 병이 깊으시니 어찌하리오?’)에 답한 말이므로 태자는 말을 듣는 이(청자)이고, 이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②는 ‘상대’이다. 원 문항의 오답 선지처럼 ‘객체’로 쓰면 틀린다.

③: ‘太子의 가 닐오되’(태자에게 가 이르되) 뒤의 말 ‘내 요소시에 여신 小國에 가 藥을 언다가 문호이다’(내가 요사이에 예순 소국에 가 약을 언다가 (얻지) 못하였습니다)은 한 대신이 태자에게 한 말이다. 여기의 ‘-이-’도 ②와 같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말을 듣는 태자를 높인다(②의 EBS 해설 판단을 같은 자료의 같은 어미에 적용함). ‘太子의 가 닐오되’에서 태자가 부사어(‘太子의’)로 나오는 것은 대신의 행동을 전하는 바깥 문장이고, ‘-이-’가 쓰인 대신의 말 안에서 태자는 말을 듣는 이일 뿐이므로 ‘객체’는 답이 아니다. 따라서 ③은 ‘상대’이다.

④: (나)의 ‘世尊 뵘고저’(세존 뵘고자)에 대해 EBS 26004-0072 선지 ②는 ‘목적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었구나’라고 하였고, 정답과 해설(21쪽 04번)은 ‘뵘고저’가 높이고 있는 대상이 앞에 있는 목적어 ‘世尊(세존)’이므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세존은 이 문장의 주어(도술천자가 된 수달)도 말을 듣는 이도 아니므로 ④는 ‘객체’이다.

⑤: ‘世尊의 뵘수바’(세존께 뵘어)는 ‘뵘-’ + ‘-스-’ + ‘-아’이다. 1부 36쪽 ‘3) 객체 높임 표현’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 ‘-습-’, ‘ㄷ, ㅌ, ㅊ’일 때 ‘-줍-’, 모음이나 ‘ㄴ, ㄹ’일 때 ‘-습-’으로 나타나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각각 ‘-스-’, ‘-즈-’, ‘-스-’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뵘-’는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아’가 왔으므로 ‘-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며, 높이는 대상은 부사어 ‘世尊의’가 가리키는 세존이다. 따라서 ⑤는 ‘객체’이다(EBS 26004-0072 선지 ③의 해설도 이 말에 현대 국어에서 쓰지 않는 ‘△’과 ‘뵘’이 쓰였다고 하였다).

정리: 주체 높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이(청자)를 높인다. 같은 ‘太子’라도 ②·③처럼 상대 높임 어미 ‘-이-’로 높이면 ‘상대’이고, 같은 ‘世尊’을 ④처럼 목적어로, ⑤처럼 부사어로 두고 객체 높임 어미로 높이면 둘 다 ‘객체’이다.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이-’, ‘-습-’, ‘-스-’ 같은 어미를 통해 높임법을 실현하는 요소가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5
문항 코드	SMKM-1305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작품의 이해, 내용과 형식의 긴밀성,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대립적 시어
예상 소요 시간	6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작품에 대한 학생의 감상을 바탕으로, 감상의 근거가 되는 시구를 찾아 ‘눈’과 ‘가래’의 대립, 화자와 ‘눈’의 관계, 부정적 현실을 정화하려는 저항 의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실전 모의고사 3회 p.200 [28~31] [26051-0178~0181] (가) 김수영, 「눈」 (전문)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5번)은 수능완성 149쪽(실전 1회 현대시) → 이번 5번도 수능완성 200쪽(실전 3회 현대시)

자료: EBS 지문 (가) 김수영, 「눈」 전문을 행과 연 그대로 실었다((나)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와 그에 대한 30번은 쓰지 않음). <보기>의 감상은 EBS 정답과 해설의 작품 해제, 28번(26051-0178) 선지 ④와 해설, 29번(26051-0179) 해설, 31번(26051-0181)의 <보기>(외적 준거)와 선지 ④·⑤의 해설 판단에서만 가져왔다.

①: 3연은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이다. 1연이 ‘눈은 살아 있다’를 되풀이하며 눈의 생명력 자체를 말했다면, ④는 ‘새벽이 지나도록’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더해 밤이 지나도록 눈이 계속 살아 있음을 말한다(EBS 해제의 구성 ‘3연: 끈질긴 눈의 생명력’). EBS 31번 선지 ④와 해설도 ‘(가)의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생명력’과 ‘관계의 지속’의 근거는 ④이다. ④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도 눈이 살아 있다고 말하지만, 눈이 떨어져 있는 자리(마당 위)를 말할 뿐 시간이 흘러도 이어진다는 뜻은 없다(1연: 눈이 지닌 생명력).

②: 2연에서 화자는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라고 한다. ‘눈더러 보라고’는 눈에게 화자의 기침을 보라고 하는 것이니, 눈을 기침을 지켜보는 존재로 삼은 것이다. EBS 31번 선지 ⑤의 해설은 ‘눈 위에 대고’, ‘눈더러 보라고’ ‘기침’을 하며 ‘가슴의 가래’를 뱉자고 하는 것을 통해 ‘눈’이 ‘젊은 시인’의 저항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였다. ④~⑥ 가운데 눈에게 ‘보라고’ 하는 시구는 ⑥뿐이므로 ②의 근거는 ⑥이다. 4연의 ‘눈을 바라보며’는 거꾸로 화자가 눈을 보는 것이고, 기호도 붙어 있지 않다.

③: EBS 28번 선지 ④의 해설은 ‘(가)에서는 눈과 가래가 각각 순수와 불순이라는 대립적인 의미를 드러내며, 순수하지 못한 것을 뱉는 저항적 태도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하였고, 해제도 순수한 ‘눈’에 ‘기침’을 하며 더러운 ‘가래’를 뱉어 내는 행위를 억눌러 살아온 삶에 대한 저항으로 풀이하였다(29번 선지 ① 해설: 불순한 것을 적극적으로 배출하려는 존재). 몸 안에 ‘밤새도록 고인’ 불순한 것은 ‘가슴의 가래’이므로 ③의 근거는 ⑥이다. ③의 밑줄은 뱉는 행위가 아니라 뱉어 낼 대상(가슴속에 오래 고여 있던 불순한 것)을 가리키므로, 바로 다음 행 ‘마음껏 뱉자’(뱉는 행위, 기호 없음)가 아니라 ⑥의 ‘가슴의 가래’가 답이다.

남는 기호: ④는 1연에서 눈이 지닌 생명력을 점점 늘어 가며 말한 시구로, 시간의 흐름(①)도, 눈이 무엇을 보는 존재가 되는 것(②)도, 뱉어 낼 불순한 것(③)도 담고 있지 않다. ⑥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는 눈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 있는지를 말하는 시구로, 시간의 흐름(①)을 나타내지 않고, 눈이 기침을 지켜보는 모습(②)도 아니며, 화자가 몸 밖으로 뱉어 내려는 것(③)도 아니다. 따라서 ④와 ⑥은 ①, ②, ③ 어느 감상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6
문항 코드	SMKM-1306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연설의 내용과 연설 전략
예상 소요 시간	4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연설 내용과 연설 전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말하기·듣기 활동으로, ‘SNS 시대,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주제로 한 연설 내용과 연설을 진행하는 과정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 [12화작02-06]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실전 모의고사 5회 [35~38] p.257~258 [26051-0275~0278] 교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연설 ‘SNS 시대, 진정한 연결의 의미’ (원문 그대로)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6번)은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73쪽(연설) → 이번 6번은 수능완성 257쪽(연설). 작년처럼 <보기>를 [연설 내용 요약]과 [연설 전략] 두 문단으로 나누고, 내용 칸 둘(①②)과 전략 칸 둘(③④)을 밑줄에서 찾아 쓰게 하였다.

①: 1문단 ‘화면에 제시된 게시물은 며칠 전 제가 올린 건데요, 이 게시물은 사실 많은 반응을 기대하며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찍은 사진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요’가 평소의 절반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평소의 절반밖에 달리지 않았을 때 느낀 감정이므로 답은 ‘소외감’이다. EBS 원 문항 38번(26051-0278) ②번 선지 해설(‘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꼈다는 계기인 ‘좋아요’가 평소의 절반밖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 적절한 진술)과 35번(26051-0275) 정답 ⑤의 해설(‘1문단에서 제시한, SNS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친구들이 보인 반응에서 느낀 소외감’)이 같은 판단이다. 2문단의 ‘피로감’과 ‘압박감’은 보고서에서 청소년들이 응답한 감정이지 연설자 자신의 게시물 경험에서 느낀 감정이 아니므로 답이 아니며, 1문단의 ‘서운해했고’는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서술어일 뿐 ‘○○을/를 느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밑줄의 말이 아니다.

②: 4문단 ‘먼저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SNS를 남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진정한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첫째 방안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SNS를 사용하는 ‘목적’이다. EBS 원 문항 35번 ③번 선지 해설(‘일상에서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점검하고, SNS 사용 시의 감정 돌아보기, 그러한 감정을 친구와 나누기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한 진술)과 같다. ‘감정’은 <보기>에서 둘째 방안(‘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돌아볼 것’)에 따로 나오므로 답이 아니고, ‘도구’와 ‘수단’은 점검의 대상이 아니라 SNS를 무엇으로 활용할지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답이 아니다. 3문단의 ‘태도’는 연설자가 ‘경계해야’ 한다고 한 대상이고, 4문단의 ‘습관’은 감정을 돌아보기 위해 ‘가져야’ 한다고 한 것이어서, 둘 다 ‘SNS를 사용하는 ○○○을/를 점검’하는 자리의 말이 아니므로 답이 아니다.

③: 1문단 ‘(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잠시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 손을 들어 보이는 비언어적 표현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답은 ‘집중’이다. EBS 원 문항 36번(26051-0276) ①번 선지 해설(“(손을 들어 보이며)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것이지 제재인 SNS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이 이 전략을 그대로 가리킨다(36번 ①은 ‘장점 강조’ 때문에 틀린 선지이고, 주의 집중이라는 판단은 해설이 인정한 부분이다). ‘환기’나 ‘주목’은 밑줄에 없는 말이므로 답이 아니다.

④: 1문단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SNS에 더 멋진 게시물을 올리려 노력한 적은 없으신가요?’ → 청중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소개하므로 답은 ‘질문’이다. EBS 원 문항 36번 정답 ②(‘질문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와 그 해설(‘1문단에서 학생은 “여러분은 누군가의 ~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이 바로 이 전략이다. ‘물음’이나 ‘문답’은 밑줄에 없는 말이므로 답이 아니고, 밑줄의 ‘공유’는 SNS의 기능이나 진짜 친구와 생각을 나누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지 연설자가 청중에게 쓴 말하기 방식이 아니므로 답이 아니다.

<보기>의 나머지 정리 문항 근거: 주제 제시와 SNS의 장점 언급은 35번 ①번 선지 해설(적절)에서, 감정과 관계를 SNS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은 2문단 끝 문장과 35번 ②번 선지 해설(적절)에서, 진정한 연결의 의미와 경계해야 할 태도는 3문단과 35번 ④번·37번 정답 ①의 해설에서, 세 가지 방안은 4문단과 35번 ③번 선지 해설에서, 마무리는 5문단에서 가져왔다. [연설 전략]의 ① 게시물·④ 통계 수치 그래프·⑤ 진정한 연결의 조건과 SNS상 연결의 특징을 설명한 자료는 38번 <보기>와 ①~④번 선지 해설(적절)에서, 3·4·5문단 서두의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36번 ④번 선지 해설의 인정 부분에서,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담화 표지로 방안을 제시한다는 말은 36번 ⑤번 선지 해설의 인정 부분에서 가져왔다. EBS가 틀렸다고 판단한 내용(35번 ⑤의 ‘청중’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수치, 36번 ③의 전문가 말 인용, 36번 ⑤의 개인적·사회적 차원 구분, 38번 ⑤의 [자료 3]으로 실천 방안 제시)은 <보기>에 넣지 않았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7
문항 코드	SMKM-1307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문화 분야의 글 읽기(건의문 초고와 보완 자료)
예상 소요 시간	5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건의문 초고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건의 사항과 그 근거·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글쓰기 계획 가운데 초고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바로잡고,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초고의 어느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화법과 작문)』 15강 통합 p.200~202 [26003-0179~0183] (나) 건의문의 초고(치매 안심 센터) (원문 그대로, (나)만) · p.204 05번 <보기> 자료 ㉗·㉘ (그래프·지도는 글로 옮김)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7번)은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110쪽(건강 작문, 건기 운동 초고) → 이번 7번도 수능특강 화법과 작문 200쪽(건강·치매 건의문). 작년처럼 [7-1] 글쓰기 계획 ㉠~㉢ 가운데 초고와 일치하지 않는 두 개를 찾아 기호와 수정한 내용을 쓰고, [7-2] 초고를 보완할 자료 번호를 찾아 쓰게 하였다.

①-1 ㉠, ①-2: 2문단 첫 문장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건의 사항은 분소 설립이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의 운영이다. 같은 문단의 ‘현재 분소 없이 본소만 운영되고 있어’는 지금의 상황을 말한 것일 뿐 분소 설립을 건의한 것이 아니다. 같은 문단 ‘각 가정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가 이 서비스의 내용이므로 ‘전문 인력 파견’도 인정한다(EBS 원 문항 03번 26003-0181 정답 ②의 해설: ‘(나)의 2문단에서 치매 환자 가정으로의 전문 인력 파견이라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나)에서는 치매 안심 센터의 분소 건립을 직접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다.’).

②-1 ㉡, ②-2: 3문단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 치매 안심 센터는 … 치매 예방 활동가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치매 인식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 ◇◇구 사례의 근거는 최근 신문 보도이다. ‘2025년도 ○○구 치매 안심 센터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2문단에서 센터 위치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정보의 출처로 쓰였으므로 둘째 건의 사항의 근거가 아니다(EBS 03번 ③: 신문 기사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3문단에서 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됨 / EBS 04번 26003-0182 ②: 만족도 조사 보고서라는 출처는 2문단의 정보에 대한 것).

일치하는 계획: ㉢은 1문단 ‘저희는 ♥♥ 고등학교 지역 사회 탐구 동아리입니다.’와 ‘○○구는 □□시에 속한 지역 중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EBS 04번 ①, 03번 ①), ㉣은 4문단 ‘그 이유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느라 종일 환자 곁에서 자리를 뜰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은 …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EBS 03번 ④), ㉤은 5문단 ‘구청의 행정 운영 면에서 예산상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EBS 04번 ⑤)와 일치한다.

③ 자료 1: [자료 1]의 노령화 지수(○○구 194 → 218 → 246, □□시 149 → 163 → 180)와 ‘○○구는 □□시 25개 구 중 2번째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음’은 1문단 ‘○○구는 □□시에 속한 지역 중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를 수치로 뒷받침한다(EBS 05번 26003-0183 해설: ㉡는 ○○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 [자료 2]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없으므로 답이 아니다.

④ 자료 2: [자료 2]의 ‘치매 안심 센터에서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치매 안심 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동 12.31%)은 2문단 ‘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센터 이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EBS 05번 정답 ②: ‘㉣을 활용해 치매 안심 센터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치매 안심 센터 이용률이 저조함을 구체적으로 제시’). [자료 1]에는 센터 위치와 지역별 이용률이 없으므로 답이 아니다.

⑤ 자료 1: [자료 1]의 ‘매년 독거노인 세대 및 치매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비용 및 돌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3문단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및 노인 세대 가정을 관리하는 치매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자는 건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독거노인 세대에 관한 내용은 [자료 2]에 없으므로 답이 아니다. 단, [자료 1]로 ‘치매 유병률이 독거노인 세대 증가의 원인’이라고 하거나(EBS 05번 ①) 구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직접 제시할 수는 없다(EBS 05번 ③).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국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8
문항 코드	SMKM-1308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기술 — 스테가노그래피
예상 소요 시간	6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디지털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기술인 스테가노그래피의 적용 과정과 임베딩 방식(LSB, WOW, 인공 지능 활용)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독서·문학·화법과 작문)』 실전 모의고사 4회 p.217 [26051-0208~0212] 스테가노그래피 (일부 문단)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8번)은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18쪽(과학·기술) → 이번 8번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217쪽(기술).

㉮(일치하지 않음): 2문단에서 «커버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대상에 은닉하는 단계», «정보를 숨긴 결과물은 ‘스테고 오브젝트’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커버 오브젝트는 정보를 숨기는 대상이고, 정보를 숨긴 결과물은 ‘스테고 오브젝트’이므로 ㉮을 ‘스테고 오브젝트’로 고쳐야 한다. 정보를 숨기는 대상(커버 오브젝트)과 숨길 데이터·결과물을 헛갈리는 것은 EBS 26051-0212 정답 ①(두피에 새긴 메시지를 커버 오브젝트에 대응시킨 오답, 해설 «커버 오브젝트는 정보를 숨기는 대상»의 판단이다. ‘임베딩’은 정보를 은닉하는 과정의 이름이므로 답이 아니다.

㉯(일치하지 않음): 4문단(원문 5문단) 첫 문장 «WOW 방식은 데이터의 삽입 용량보다 은닉성에 초점을 둔 임베딩 알고리즘이다»에서 WOW 방식이 초점을 둔 것은 ‘은닉성’이다. 따라서 ㉯ ‘삽입 용량’을 ‘은닉성’으로 고쳐야 한다(EBS 26051-0209 정답 ③ «방향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가 적절하지 않은 까닭, 해설 «은닉성에 초점을 둔 임베딩 알고리즘 … 더 많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같은 문장의 뒷부분(방향성을 갖는 필터로 각 픽셀의 적합도를 계산함)은 4문단(원문 5문단)과 일치한다. ‘보안성’은 2문단에서 암호화 과정이 있을 때 높아지는 것으로, WOW 방식이 초점을 둔 말이 아니다.

㉺은 1문단 «데이터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이 핵심이다»와 일치한다(EBS 26051-0208 ⑤ 적절한 선지). ㉻은 2문단 «암호화 과정이 생략된 스테가노그래피는 구현이 쉽지만 보안에 취약하다»와 일치한다(EBS 26051-0208 ② 적절한 선지). ㉼은 3문단 «이미지의 픽셀값을 구성하는 최하위 비트를 바꿔 정보를 숨기는 것이다»와 일치한다(EBS 26051-0209 ①·② 해설의 LSB 방식 설명).

참고: 원문 4문단(PVD 방식)은 원문 지면의 <차잇값 범위표>를 함께 보아야 하는 문단이어서 이번 지문에서 뺐고, <보기>도 PVD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수학]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9
문항 코드	26054-1020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로그함수의 교점과 이차방정식
예상 소요 시간	7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로그함수의 교점과 이차방정식을 원문 조건에 적용하여 값을 구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수학 I · 수학 II · 확률과 통계 p.112 (2026년 발행)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9번)은 교과서 + 수능완성 11쪽(로그함수) → 이번 9번도 수능완성 112쪽(로그함수)

(1) 점 P에서 $\log_2(k-p) = \log_2 p$ 이다. 로그함수는 일대일 대응이므로 $k-p = p$, 따라서 $p = k/2$ 이다. $k > 2$ 이므로 $p > 0$, $k-p > 0$ 으로 진수 조건도 만족한다.

(2) $\log_{1/2} x = -\log_2 x = \log_2(1/x)$ 이므로 두 교점의 x 좌표는 $k-x = 1/x$, 즉 $x^2 - kx + 1 = 0$ 의 두 근이다. 따라서 $q+r = k$ 이고 $qr = 1$ 이다. 제1사분면의 Q에서는 $0 < q < 1$, 제4사분면의 R에서는 $r > 1$ 이므로 $r > q$ 이다. $p = (q+r)/2$ 에서 $p-q = (r-q)/2 = 2\sqrt{2}$ 이므로 $r-q = 4\sqrt{2}$ 이다.

(3) $(q+r)^2 = (r-q)^2 + 4qr = 32 + 4 = 36$ 이고 $q+r = k > 2$ 이므로 $k = 6$ 이다. 따라서 $k + (r-q)^2 = 6 + 32 = 38$ 이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문항정보 - 수학]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계열 / 문항번호	인문 계열 / 문제 10
문항 코드	26054-0121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Ⅱ
핵심개념 및 용어	절댓값 함수의 미분가능성(방정식의 홀근·중근)과 극소 조건으로 삼차함수 결정
예상 소요 시간	8분 / 전체 60분

2. 출제 의도

삼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중 하나는 중근이라는 사실로 삼차함수의 꼴을 두 가지로 좁히고, 절댓값을 씌운 다항함수가 홀근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꼴을 고른 뒤, 극소 조건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능력을 확인한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 8]

- [12수학Ⅱ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2027 EBS 수능완성 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p.54 (2026년 발행) — 원문 조건에 조건 (다)를 더해 재구성
-------	--

4. 문항 해설

연계: 작년(2026 인문 A형 10번)은 교과서 + 수능완성 49쪽(구간함수·절댓값의 미분가능성) → 이번 10번은 수능완성 54쪽(절댓값 함수의 미분가능성과 극소)에 조건 (다)를 더해 재구성

(1) [근의 모양]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이다. 계수가 모두 실수인 삼차방정식 $f(x) = 0$ 은 근이 중복된 것까지 세어 3개이고, 허근은 서로 켜레인 두 근이 짝지어 나타나므로 허근의 개수는 0 또는 2이다. 따라서 실근은 중복된 것까지 세어 3개이거나 1개이므로, 조건 (다)처럼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이면 그중 하나는 중근이다. 1이 아닌 실근을 c ($c \neq 1$)라 하면

$$f(x) = (x-1)^2(x-c) \quad \text{또는} \quad f(x) = (x-1)(x-c)^2$$

이다. …… ㉠

[절댓값 함수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 다항함수 $p(x)$ 에서 $p(k) \neq 0$ 이면 k 가까이에서 $p(x)$ 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므로 $|p(x)|$ 는 $x = k$ 에서 미분가능하다. k 가 방정식 $p(x) = 0$ 의 홀근이면 $p(x) = (x-k)q(x)$, $q(k) \neq 0$ 으로 쓸 수 있고, $x = k$ 의 좌우에서 $p(x)$ 의 부호가 바뀌어 $y = |p(x)|$ 의 그래프가 꺾인다. 실제로 우미분계수는 $\lim_{x \rightarrow k+} \frac{(x-k)|q(x)|}{x-k} = |q(k)|$, 좌미분계수는

$$\lim_{x \rightarrow k-} \frac{-(x-k)|q(x)|}{x-k} = -|q(k)| \text{로 서로 다르므로 미분가능하지 않다. } k \text{가 중근 이상이면 } p(x) = (x-k)^2 q(x) \text{로 쓸 수 있고}$$

$$\lim_{x \rightarrow k} \frac{|p(x)| - |p(k)|}{x-k} = \lim_{x \rightarrow k} (x-k)|q(x)| = 0 \text{이므로 미분가능하다. 즉, } |p(x)| \text{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실수는 방정식}$$

$p(x) = 0$ 의 홀근뿐이다. …… ㉡

[두 꼴 비교] ㉠ $f(x) = (x-1)(x-c)^2$ 이면 $(x-1)f(x) = (x-1)^2(x-c)^2$ 에서 1과 c 가 모두 중근이므로, ㉡에 의하여 $|(x-1)f(x)|$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하다. 미분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개수가 0이므로 조건 (가)에 맞지 않는다. ㉡

$f(x) = (x-1)^2(x-c)$ 이면 $f(x) = 0$ 의 홀근은 c 하나이므로 $|f(x)|$ 는 $x = c$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또

$(x-1)f(x) = (x-1)^3(x-c)$ 에서 1은 삼중근, 홀근은 c 하나이므로 $|(x-1)f(x)|$ 도 $x = c$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두 개수가 각각 1이므로 조건 (가)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f(x) = (x-1)^2(x-c)$ 이고, $|f(x)|$ 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c 이므로 $a = c$ 이다. 즉, $f(x) = (x-a)(x-1)^2$ (단, $a \neq 1$)이다.

(2) (1)에서 $f(x) = (x-a)(x-1)^2$ ($a \neq 1$)이므로 곱의 미분법에 의하여

$$f'(x) = (x-1)^2 + (x-a) \times 2(x-1) = (x-1)\{(x-1) + 2(x-a)\} = (x-1)(3x-2a-1)$$

이다. 조건 (나)에서 $f(x)$ 는 $x = 3$ 에서 극소이고, $f(x)$ 는 미분가능한 함수이므로 $f'(3) = 0$ 이어야 한다.

$f'(3) = (3-1)(9-2a-1) = 2(8-2a) = 0$ 에서 $a = 4$ 이다. (이것은 $a \neq 1$ 을 만족시킨다.) 이때 $x = 3$ 에서 실제로 극소인지 확인한다. $a = 4$ 이면 $f'(x) = (x-1)(3x-9) = 3(x-1)(x-3)$ 이므로 $f'(x)$ 의 부호를 구간별로 보면 $x < 1$ 에서 $(x-1) < 0$, $(x-3) < 0$ 이므로 $f'(x) > 0$ (증가), $1 < x < 3$ 에서 $(x-1) > 0$, $(x-3) < 0$ 이므로 $f'(x) < 0$ (감소), $x > 3$ 에서 $(x-1) > 0$, $(x-3) > 0$ 이므로 $f'(x) > 0$ (증가)이다. 즉, $f(x)$ 는 $x = 1$ 에서 극대, $x = 3$ 에서 극소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a = 4$ 이다.

(3) (1), (2)에서 $f(x) = (x-4)(x-1)^2$ 이므로 $f(5) = (5-4) \times (5-1)^2 = 1 \times 16 = 16$ 이다. (검산: 전개하면

$f(x) = (x-4)(x^2-2x+1) = x^3-6x^2+9x-4$ 이고 $f(5) = 125-150+45-4 = 16$ 으로 같다. 또 $f(x) = 0$ 의 근은 $x = 1$ (중근), $x = 4$ (홀근)이므로 $|f(x)|$ 는 $x = 4$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고, $(x-1)f(x) = (x-1)^3(x-4)$ 의 근은 $x = 1$ (삼중근), $x = 4$ (홀근)이므로 $|(x-1)f(x)|$ 도 $x = 4$ 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아 조건 (가)를 만족시킨다.

$f'(x) = 3x^2-12x+9 = 3(x-1)(x-3)$ 이므로 $x = 3$ 에서 극소여서 조건 (나)도 만족시킨다.)

■ 채점 기준(단계별 배점 · 인정 답)은 파이널 수강생에게 전체 공개

막차수학

샘플은 여기까지

나머지 9일은 상명대 파이널 10일에서

상명대 파이널 10일

1. 올해 EBS를 상명대 방식으로 바꾼 문제
2. 상명대 기출 + 실전 모의 10회
3. 문제마다 해설 강의 · 채점 기준 전체 공개
4. 1:1 카톡 관리



1:1 상담 · 신청

open.kakao.com/o/s7ViMQvg



막차수학 홈페이지

makchamath.com

학교별 시험 일정 · 합격생 인터뷰 · 파이널 신청

시험일 — 상명대 10월 30일~31일 · 서경대 11월 1일